

리아호나

매일 성경을 나누어 주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별채 박물관 · 친구들 · 1999년 9월 9일



리야호나



표지:
 앞 그림: 테드 헤닌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심; 뒤 그림: 제임스 자크스 조
 셉 티숏, 폭풍우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무시는 예수님

친구들 표지
 사진 촬영: 마릴린 맨드루즈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탁월함을 추구함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 14 이혼의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운 주님의 속죄
- 24 자몽 신드롬 로라 비 울더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역경 속에서 구세주께 의지함
- 32 성전 가먼트: "마음 속의 악속을 외부로 표현함"
 칼로스 이 에이시 장르
- 40 오래된 데저렛 마을
- 48 영으로 교화됨 에바니트 카르도소

청소년란

- 9 물문 메시지: 본향을 떠난 여러분의 집
- 10 미리 결정을 내린 젊은이들 에프 오니아부에즈 데리브
- 20 달려도 피곤하지 않음 앤 빌링즈
- 26 질의응답: 어떻게 험담을 피할 수 있을까요?
- 30 복지 지향적인 활동의 밤
- 44 도전을 받아들임 엘 톰 페리 장르



친구들(별책 부록)

- 2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 4 주님을 신뢰함 로빈 비 랭버트
- 8 그들은 주님을 증거함
- 10 친구 사귀기: 파블로와 휴고 바렐라, 벨기에 워털루 줄리 워델
- 13 간증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 14 이야기: 미미의 간증 진 앤 버건



32쪽 참조

친구들, 13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
우스트

십이사도 장원회: 보이도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
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틴, 리처드 지
스쿠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린

편집인: 알린 케이 쉰슨
고문: 제이 이 쉰슨, 존 엠 매드슨

교파 파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엘 홀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브로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메스 데일리
출판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편집 보조: 래너 제이 카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앨렌
선임 디자이너: 세리 록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슨
생산: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데니즈 커비, 제이슨 앨 엠
포드, 디나 엘 소렌슨
디지털 교정 인쇄: 체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텐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402호, 제 36권, 제 9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9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함상익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전달 가격은 500원입니
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
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
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
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되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
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부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
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
일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
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노르웨이
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
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
라이니아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199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September 1999 No.9.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
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
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
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보물

저는 온두라스의 테구시갈과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복음 선교사입니다. 아픈 동반
자를 간호하던 어느 날 1988년부터 1998년까
지의 리아호나(스페인어판)들이 담겨 있는 박
스를 발견했습니다. 전 보물을 찾은 것이었습
니다.

동반자가 회복되는 동안 잡지들을 읽었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하워드 더블유 헌
터 대관장과 현재의 예언자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가르침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
다. 저는 이 지식의 보물을 찾을 수 있어서 무
척 기뻐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선교 사업에 도움이 되었습니
다. 저는 리아호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마
다 그들에게 빛과 지식의 위대한 보물을 주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보물은
저를 비롯한 많은 이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베어 이카 솔 벨 쿠에즈 자매,
온두라스 테구시갈과 선교부

다른 이들의 경험을 통해 고양됨

저는 기분이 울적할 때면 리아호나(스페인
어판)에 끌리게 됩니다. 리아호나를 통해서 비
슷한 시련을 겪은 다른 회원들의 경험이나 복
음 생활로 인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경험들을
읽으면 항상 고양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 1993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전 가족
중에서 유일한 회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보
낸 선교사가 저의 고향인 멕시코의 작은 마을
에 올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이 오
면 가족들도 저처럼 복음을 받아들여기를 기
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
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에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루벤 고메즈,
릭비 아이다호 스테이크
릭비 제9와드

여러 면에서 영감을 주다

적절하고 영감에 찬 기사와 잡지들에 감사
드립니다. 전 시간이 나면 리아호나(영어판)를
읽고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이 잡지는 세계 여러 면에서 영감을 줍니다. 그
리고 저를 위안해 주고 새롭게 하며, 영감을 주
고 구세주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해줍니다.

조세핀 발레스,
마스베이트 필리핀 지방부,
마스베이트 지부

결혼과 가족 생활에 관한 기사를 모집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상호간의 관
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활동들이 서로와의 관계와 주님과과의 관계를
가깝게 했습니까? 리아호나에서는 결혼과 가
족 관계를 강화시키는 주제에 관한 제언, 이야
기, 사건, 그리고 간증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
사와 함께 가능하면 가족 사진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Strengthening Families,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혹은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CUR-Liahona-IMag@ldschurch
.org.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 전체(성
명)를 밝혀 주시고 여러분의 주소, 전화 번호,
와드와 스테이크명도 기재해 주십시오.(지부
와 지방부)



탁월함을 추구함

고든 비 험블리 대관장

제가 다음과 같은 대사를 읽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67년 전 대학 영어 시간 이었습니다. "인간이란 그 얼마나 조화로운 걸작인가! 고상한 이성! 무한한 능력! 명확하고 감탄할 만한 거동과 자태, 그리고 천사와 같은 행동! 신의 지혜를 가진 인간은, 진정 세상의 꽃이요, 만물의 영장이 아닌가!"(험블리, 2막 2장, 303~307행)

저는 이와 같은 험블리의 대사에 반어적인 수사법(실제로 표현된 뜻과 의도한 진짜 뜻이 반어이며, 격렬하고 익살과 비꼼의 효과를 가진 것)이 사용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사에는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에는 인간의 잠재적인 탁월함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위에 인용한 말 외에는 어떠한 작품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독백의 몇마디 말이 그를 같이 기억되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험블리의 대사는 다음과 같은 다윗의 말과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
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시편 8:3~5)



여러분은 가장 탁월한 모범을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찾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그분을
친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께서 걸으셨던
길을 견도록 노력하며,
자비를 베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덜 이기적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은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하셨던 다음과 같은 말씀과도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욥기 38:4, 7)

이러한 장엄한 말씀은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인간이란 남자와 여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신성을 조금씩은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어디에 사는 아무개 씨의 아들이나 딸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탁월하게 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평범과 탁월함 사이의 차이는 극히 미미합니다. 2002년 동계 올림픽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리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그 차이가 10분의 1 초까지 측정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기울이는 작은 노력이 그와 같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총관리 역원이 최근에 교도소를 방문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분은 잘 생기고 그 나름대로 똑똑한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분은 교도관에게 젊은이가 무슨 일로 이 곳에 오게 되었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어머니의 차를 훔쳐 타고 맥주를 마신 뒤, 취한 채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다가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차를 인도로 몰아 두 소녀를 치어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젊은이가 교도소에 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교도소에 갇히게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회한의 느낌을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란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작은 결정이 그처럼 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실수가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인생의 진로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보다 높은 탁월함의 길을 걷도록 권유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저는 한 오래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것은 리톤 스트래치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1820~1910)의 일생이라는 책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요즘에는 이러한 종류의 책을 잘



삽입 그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초상화/수퍼스톡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 전에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다시 읽었을 때 새삼스레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친 영국의 위대한 젊은 여성에 대한 감탄과 존경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파티와 댄스와 경마를 즐기고 사회에서 멋지게 보이는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삶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녀를 그녀의 부모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소망은 환자들의 이쁨과 고통을 덜어 주고 치료를 서두르게 하며, 그 당시의 병원을 좀 덜 지독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녀는 간호하는 일에 전념했고 훈련을 통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터키와 러시아 사이의 크림리아 전쟁(1854~1856)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에게는 정부의 고위층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즐기치게 그들을 설득하여 마침내 전쟁으



지비의 봉사: 스쿠터리에서 부상자를 돌보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국립 초상화 갤러리, 영국 런던/슈퍼스톡

로 인해 발생한 수천 명의 부상자들이 있는 스쿠터리의 병원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그곳의 상황은 참으로 절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한 낡은 창고가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위생 상태는 참으로 열악했으며 조리 시설 또한 형편없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들은 커다란 방마다 가득하였고, 그 방들은 악취와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연약한 젊은 여성 나이팅게일은 모집한 사람들과 함께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규제가 만들어 내는 장벽을 극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스트래치 씨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부상자들 사이에서 굶하지 않는 용기와 끈기 있는 결단력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침상에서 저 침상으로 분주히 옮겨 다니면서 간호하던 그녀를 주시하던 사람들에게는, 그녀가 기울이는 혼신의 힘과 헌신으로도 그 많은 환자들을 간호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커다란 병실들에는 환자들의 고통이 극

세계 역사상 램프를 든
이 백의의 천사만큼 인간의
불행을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나이팅게일은 19세기 중반
스쿠터리에 있는 병원의
그 많은 병실을 걸으면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위로와 믿음과 희망을
전파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탁월한 삶이었습니다.

에 달했고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부상자들을 돕기 위해 애쓰며 실제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온 그녀의 노력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 병실에 있는 환자들의 고통은 최악에 달했으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엄청났지만, 바로 그러한 곳에는 언제나 마술처럼 나이팅게일이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병사들을 눕힌 침상이 6킬로미터 이상 뻗뻗히 펼쳐져 있었는데, 각 침상 사이에는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채 안 되어 “병실의 혼란과 절박함이 사라졌고 질서가 잡혀 갔으며 청결해졌습니다. 보급품은 즉각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었습니다. 중요한 위생 문제 역시 해결되었습니다. 한 가지 단순한 수치 비교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즉 병원 환자의 사망률이 42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떨어졌던 것입니다.”(나이팅게일의 생애(1934년), 1186쪽)

그녀는 진정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고통이 감소되었습니다. 어둡고 무서운 전쟁터에서 죽을 줄지도 모르는 병사들의 삶에 원기와 온정과 빛이 찾아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영웅이 되어 영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그녀를 찬양하는 기사가 많이 실려 그녀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듣게 될 주위의 찬사나 아첨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귀국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50년 동안 군부대와 민간 병원의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말년에 노환으로 침상에서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램프를 든 이 백의의 천사만큼 인간의 불행에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은 19세기 중반 스쿠터리에 있는 병원의 그 많은 병실을 걸으면서 고통 중에 피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위로와 믿음과 희망을 전파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탁월한 삶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한 친구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 고아가 되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장하면서, ‘어머니는 어렸을 때 어땠을까? 어

떤 분이셨을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는 우연히 어머니의 학창 시절의 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는 다음과 같은 선생님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여러 면에서 탁월한 학생입니다.”

이것을 읽은 순간부터 그녀의 모든 삶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탁월한 여성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태도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탁월한 자질을 갖게 되어 마침내 비범한 여성이 되었고 유명한 인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탁월하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탁월하게 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자제하며, 조금 더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 각자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위대한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살아 있는 동안 계속되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찮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뛰어날 수 있는 높은 터전으로 올라가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에 걸쳐 훌륭한 영향력을 미쳐 온 이 위대한 교회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놓치지 마십시오. 탁월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무엇보



다도 배우자 찾기를 희망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훌륭하고 행복한 결혼, 인생을 달콤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결실이 많은 결혼을 하도록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결혼이 서로 다투고, 서로를 경멸하고, 서로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결혼은 훌륭한 결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여기고 그렇게 대하십시오. 배우자의 행복과 위안을 키워 나가는 것을 여러분의 변함 없는 목표로 삼으십시오. 서로 애정과 존경과 믿음을 보여 주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되

예언자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은사로써 하나님께서는 더욱 [탁월한] 길을 예비 하셨으니” 조금만 더 노력을 합시다.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새로운 만족과 새로운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림: 하인리히 호프만,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 관현.
삽입 그림: 주디트 메어, 너희는...활지여디의 일부



십시오.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모범을 하나님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그분을 친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께서 걸으셨던 길을 견도록 노력하며, 자비를 베풀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덜 이기적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탁월함의 모범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 가장 미천한 환경으로 이 지상에 오셔서 목수 요셉의 이들로써 성장했습니다. 그분은 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나아오셨습니다. 짧은 성역 동안 그분은 이 지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진리와 더 많은 희망과 더 많은 자비와 더 많은 사랑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고린도전서 15:20)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약속을 가져오셨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영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의의 모범이시며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끊임 없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지향해야 할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언자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은사로써 하나님께서는 더욱 [탁월한] 길을 예비하셨으니”(이디서 12:11 참조) 여러분은 그러한 신앙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신앙의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신앙의 모범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조금 더 커지도록, 조금 더 높아지도록, 조금 더 나아지도록 노력합시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합시다.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 속에 새로운 만족과 새로운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 그것이 바로 탁월함에 있어 최고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 풍부하고 훌륭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나 한 달 혹은 1년 만에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 동안 그것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백한 약점을 지닌 채 살아가는 동안

점차 그러한 약점들을 강점으로 변화시키며 계속 노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엘마서 37:47) 하십시오. 그분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지지하실 것입니다. 분명 발전과 성장이 있으며 향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행복이 더해질 것입니다.

지난날 실패했다라도, 죄를 범했다라도, 게을렀더라도 그것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목표 또한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할 기회는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 주고 강화시키는 것, 고통을 덜어 주는 것,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돕는 것,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램프를 들고서 세상의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를 걷는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전에는 주님께서 “두루 다시시며 착한 일을 행하”(사도행전 10:38)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분은 온전함의 가장 높은 모범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도록 요구하신 완전함의 길을 희망과 신앙과 사랑, 즉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 모두는 탁월함에 대한 큰 잠재력을 지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 우리는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자제심을 기르고, 보다 높은 고귀함의 길을 견도록 권유받았습니다.
3.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탁월함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4. 지금은 우리 각자가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위대한 날입니다. 영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탁월할 수 있도록 일어서십시오.
5. 우리의 가장 탁월한 모범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6.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물론 메시지

본향을 떠난 여러분의 집



“우리는 내려가자. 저 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아브라함서 3:24)

미리 결정을 내린 젊은이들

글쓴이: 에프 오니에부에즈 메리브

사진 촬영: 글쓴이

휴스턴 친우오크
메리브와 레이몬드 이디오
에그보는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의로운 일을
선택하기로 한 결심을
통해 축복을 받았다.

휴스턴 친우오크 메리브와 레이몬드 이디오 에그보는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들은 선교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만나서 우정을 나눈 적은 없었지만 두 사람 다 나이지리아 본국에서 교회로 개종했다. 그리고 둘 다 청소년 시절에 침례를 받았고 4년 간의 세미나리 교육을 받았으며, 나이지리아 라고스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 곳의 선교사들은 약 80퍼센트가 나이지리아 본토인들이다. 이들은 복음 선교사로 활동하는 동안 여러 가지 도전과 난관에 부딪혔지만, 미리 준비를 해두고 의로운 일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여 축복받았다.

세미나리를 하면서 준비를 갖추

휴스턴과 레이몬드는 자신들이 의로운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나이지리아에서 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에 갖는 세미나리에 참석한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레이몬드는 세미나리에 참석하면서 무엇보다도 선교사로 나가기로 소망했다고 말했다. 한편, 휴스턴은 이렇게 말했다. "세미나리 덕분에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가르치게 될 복음 원리와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리에서는 회원들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쳐 주지요. 세미나리는 저에게 복음의 참됨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경전 공부를 통해 힘을 얻음

세미나리는 이 두 소년에게 경전을 공부하고 그로부터 힘을 얻는 방법을 배우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레이몬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물론경 말씀에서 힘을 얻어요. 제가 커다란 역경에 처했을 때 모사이아서 2장 41절에 있는 베냐민 왕의 말씀은 제가 큰 어려움에 치할 때마다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열의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축복을 받은 행복한 상태를 마음에 기억하라.'"

휴스턴은 구세주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함으로써 힘을 얻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교사 시절 저는 자신을 그리스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범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극복하셨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고 결심이 굳어져 그분처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는 했습니다."

순종과 근면을 통해 축복받음

이 두 젊은이는 선교사로 봉사하기 전부터 순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특히 선교사 규칙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휴스턴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선교사 규칙을 지키는 일을 계명을 지키는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임무를 시작할 때, 저는 제가 성취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선교사업 초기부터 저는 열심히 일할 것을 결심했었지요."

한편 레이몬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지적인 것보다 중요하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나의 아들이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40쪽)는 말씀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경 공부를 강화하여 영적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했고, 선교사 규칙을 지키고 스스로 공부하며 최선을 다하기로 처음부터 결심했습니다."

역경 속에서 성장함.

휴스턴과 레이몬드는 선교 사업 임지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빠짐

없이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갖추었다 해도 역경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준비된 자세는 계속 노력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했다.

휴스턴은 1994년 4월에 나이지리아 라고스 선교부에 도착했다. 그가 맡은 첫 번째 전도 구역은 아게그라는 매우 드넓은 지역이었다. 가장 가까운 지부는 4킬로미터 떨어진 오그바라는 지역에 있었다. 이 같이 이 두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구도자들이 침례받기까지 교회 모임에 매번 참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휴스턴과 그의 동반자는 거의 4개월 동안 끈질기게 노력했으나 침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더욱더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들은 마침내 다섯 식구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이 가족들에게 침례를 줄 준비를 하게 되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와 저의 동반자는 우리의 첫번째 개종자 침례식에 참석하고자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부장 보조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차를 몰고 오더니 제가 다른 구역으로 이동 명령을 받게 되었다고 알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새로운 동반자와 교체하게 되었고 새로운 임지 베닌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저의 최초의 개종자 침례식을 보지 못하게 되어 몹시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자의 개종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휴스턴은 베닌으로 이동 와서 레이몬드를 알게 되었다. 레이몬드는 휴스턴보다 며칠 늦게 라고스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곧바로 베닌으로 왔다. 레이몬드와 그의 동반자는 처음 전도하던 날 휴스턴과

함께 활동했다. 레이몬드는 자신이 처음 전도하던 날 복음 토론 가르치기가 두렵다고 말했는데 그때 휴스턴이 격려해 주었던 말을 떠올렸다. "장로님, 계속 하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장로님과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해냈다면 장로님도 해낼 수 있습니다."

레이몬드는 과거를 회상하며 계속 이렇게 말했다. "저는 힘과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제가 복음 토론을 마쳤을 때 휴스턴이 저의 무릎을 치며, '장로님, 잘하셨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더군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마음속으로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활동 시작 후, 우리들의 전도 길은 여러 차례 갈라지기는 했지만 그러한 감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레이몬드는 라고스로 이동되었다. 그 곳에서 그는 선임 동반자가 되었다. "라고스에서 3개월 동안 봉사했으나 침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지도자로서 부족함을 느꼈죠. 우리는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선교부장님께 저는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선교부장님께서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보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레이몬드는 이렇게 말을 이어 나간다. "열네 명 구도자 중에서 일곱 명이 침례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도자들이 침례받기 2주 전에 저는 선교부장 보조 선교사에게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 갈 준비를 하라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레이몬드가 침례식에 참석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한 달도 안 되어 구도자 열네 명이 모두 침례를 받았는데, 이들의 침례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해 저는 몹시 서운했

습니다. 하지만 저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으며 거두는 자가 따로 있으나 이들은 모두 포도원의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전을 위해 자신을 강화함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일은 도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레이몬드와 휴스턴은 주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다.

휴스턴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선교부장 보조 선교사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힘

들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야 했는데, 그중에는 저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선교사도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부적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고 그 결과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주님께서 합당한 자질을 내려 주신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인용한 해롤드 비리 대관장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50쪽)는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저는 자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레이몬드는 안내심 키우기가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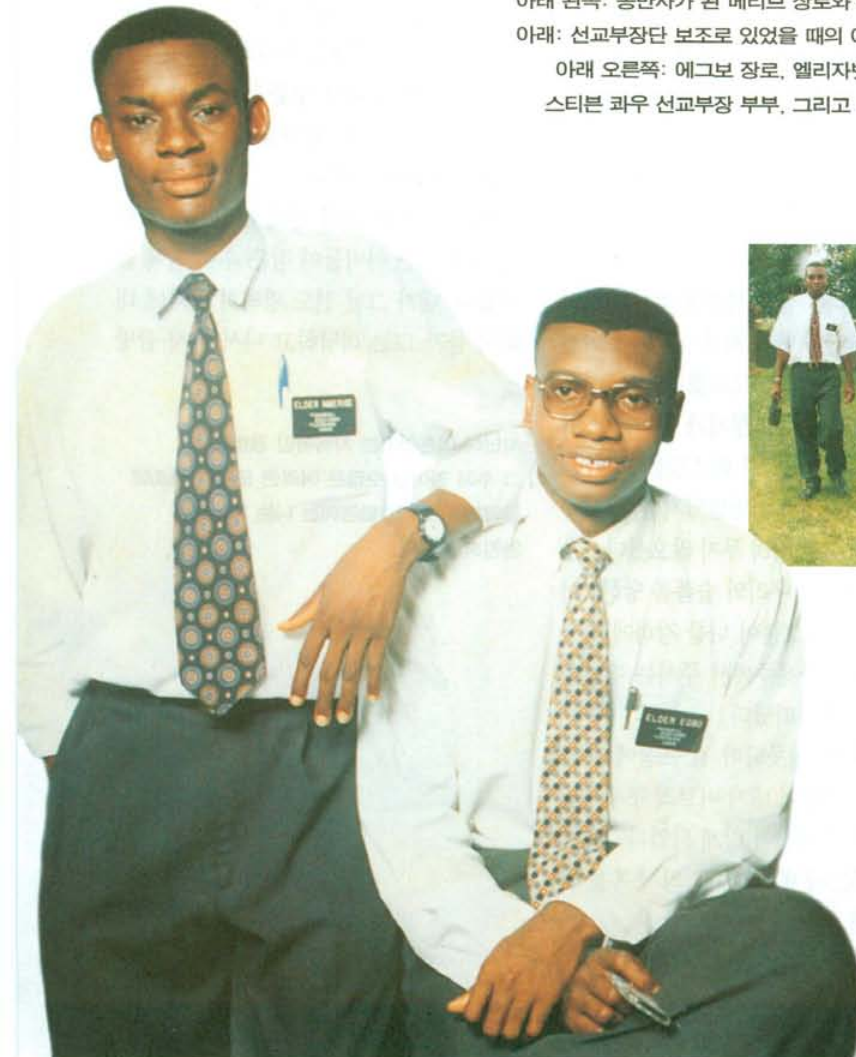
들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자신의 책임을 아는 사람들이 올바른 원리를 배웠으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나 자신을 일깨워 줌으로써 이런 문제에 대처해 나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해 나갈

선교 사업 기간 동안 휴스턴 메리브와 레이몬드 에그보에게 가장 좋았던 시간은 구도자들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보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은 선교 사업에서 귀환한 지 여러 해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왕국에서 이들이 해야 할 봉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주

아래 왼쪽: 동반자가 된 메리브 장로와 에그보 장로.
아래: 선교부장단 보조로 있었을 때의 이들 두 장로.
아래 오른쪽: 에그보 장로, 엘리자벳 파우 자매, 스티븐 파우 선교부장 부부, 그리고 메리브 장로.



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축복을 받고 있다. 휴스턴 친우르크 메리브는 현재 나이지리아 칼라바 지방부 칼라바 제3지부에서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한편 레이몬드 이디오 에그보는 칼라바 제2지부에서 선교 책임자이자 칼라바 지방부 선교부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

이혼의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운 주님의 속죄

결혼 생활로 시달리면서 나는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시는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익명

“지난 토요일,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글로 써줄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었소. 자 이제 여기에 쓰겠소.” 남편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남편의 애정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이미 감지했었지만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날벼락 같은 그의 편지를 읽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었다. 우리의 15년 간의 결혼 생활에 틀림 없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피로워하면서 나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 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힘을 얻기로 결심했다.

해의 왕국의 방에서 어느 자매가 나에게 휴지를 건네 주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내 감정을 눈치채고 무언가 도울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당신이 내 희망과 꿈을 돌려줄 수 있었어요? 영생을 돌려 줄 수 있었어요?’

나는 계속 울었다. 몇 분 후 해의 왕국의 방에 좀더 많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떤 형제가 가까이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그러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장막 저편에 계신 사랑하시는 분들이 당신과 함께 계신 것같이 느껴집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형제가 일어나서 나갈 때 나는 주님의 영의 따스함을 느꼈다.

나는 남편에게서 버림받았지만, 구세주께서는 나를 홀로 버려 두지 않으셨다. “우리의 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이사야서 53:4)신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 나는 그날 구세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끼면서 성전을 떠났다.

결혼 생활이 잘못되어 갈 즈음에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내게 이르러 구세주의 속죄의 권능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 후 4년 동안 나는 구세주의 속죄의 축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고침을 받는 권능을 발견함

결혼 문제로 시달리면서 나를 짓누르는 피로운 일들이 것처럼 많은 것에 놀랐다. 그러나 이런 시련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나는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도와 주시는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남편에 대한 교회 선도 평의회가 있던 날 저녁 그는 아이들이 잠든 후에 집에 돌아왔다. 내가 그날 선도 평의회 결과에 대하여 묻자 그는 대답하고 나서 마치 금방

지난해 이혼이라는 치욕적인 경험은

그 후에 일어난 수많은 어려운 문제의 시초에 불과했다. 그 해 말경에는 나는 자존심을 완전히 잃었다.



생각난 듯이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데 말이오, 내 친구 몇 명이 에이즈에 걸려 죽었어. 그렇지만 걱정마오. 검사를 해보았는데 나는 감염되지 않았소.”

그가 청년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나는 이 새로운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울음을 터뜨리고 기도하러 내 방으로 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슴이 미어질 듯한 나의 울부짓음을 들어 주셨으며, 나는 위로를 받았고 마음이 평온해졌다. 큰 힘을 받은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있었다. 그 후 의사가 처방해 준 치욕적인 검사를 참고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경험으로 인해 내게 있어 구세주의 속죄에 관한 가르침은 단순한 경전 구절이나 관념 이상의 것이 되었다. 그것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되었던 것이다. 회개, 용서, 구세주를 믿는 신앙이라는 진리는 내 인생에 절실히 필요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행동의 원리가 되었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도와 주시고 고쳐 주시는 능력의 강력한 실체를 더욱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름

작년에 있었던 굴욕적인 결혼 파탄 경험은 정말이지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남편의 부정을 알게 된 것, 감독님과 스테이크 부장님께 내 사생활을 공개한 것, 남편이 집을 나가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처하는 것, 이혼 절차를 밟는 것, 아버지가 집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

는 것은 끝없이 퍼져 나가는 문제의 발단에 지나지 않았다. 나 또한 시부모님과 가깝던 관계를 잃게 되었고, 친정과 와드와 스테이크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구해야 했고, 딸 중 하나가 입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했고, 암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심한 차량 사고에서 회복되었고, 학사 학위를 따기 위한 학업을 마치느라 고생했고, 직업을 구하면서 많은 실망을 맛보았다. 그 해가 다 저물어 갈 무렵 나는 자존심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았다. 나는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다]”는 느낌(모사이아서 4:5)으로 겸손해졌던 것이다. 또한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서 내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분인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되었다.

감정은 여전히 절망스러웠으나 나는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기회로 받아들였다. 나는 역경과 영적인 순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기에 나는 자주 ‘이러한 상황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라고 자문해 보곤 했다. 나는 기도와 경전 공부, 명상, 그리고 성전 참여를 통해서 구체적인 응답을 구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받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더 많은 인내력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보다 깊은 신뢰를 얻게 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다음 말씀은 내게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더할 나위 없

이 놀랄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 안에 완전히 들어 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회개”,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중요심을 버림

영감에 찬 인도를 구한 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는 어떻게 내 경험이 성장을 위한 기회인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나의 전남편이나 현재의 여건에 대하여 내가 느꼈던 중요성은 속죄의 축복과는 모순이 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보다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한 것은 내가 중요성을 버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도록 도와 주었다. 나는 우리의 완전한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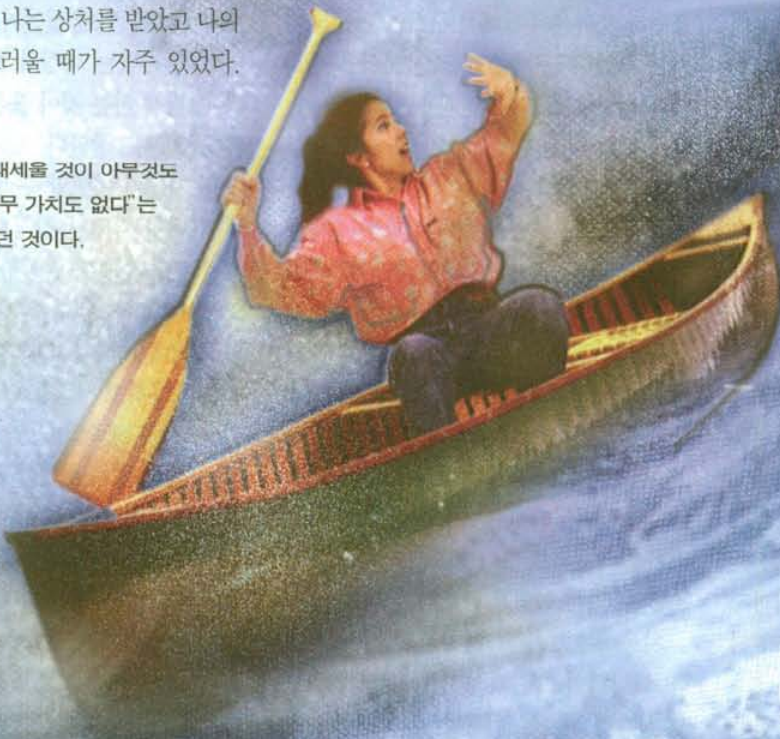
현재 칠십인 정원회의 브루스 시 하펜 장로의 인용구를 침실 문에 걸어 두고서 그것을 읽을 때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만일 우리가 일상 생활의 무거운 부담과 한계를 잠시나마 잊고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 향하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 내신 주님이 격려하시는 속삭임을 듣게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약속이 참되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은 자비롭게

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궁극적으로는 축복이 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애통하는 마음(1989),109)

변명을 삼가다

자기만 알고 있는 이유로, 남편은 자기 가족이나 친구 등 어느 누구에게도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말았다. 시댁 친지들은 아마도 남편의 결정에 타당성을 부여하려 했는지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물어 보지 않고 멋대로 추측했다. 그리고 그들은 몇 가지 그릇된 결론을 내렸다. 나는 대체로 그들의 비판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는데 해명할 기회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의 비판으로 나는 상처를 받았고 나의 성실성도 의문스러울 때가 자주 있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 자신이 "아무 가치도 없다"는 느낌으로 겸손해졌던 것이다.



그 동안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이들이 나라는 사람을 정말로 알기나 했었는지조차 의심이 갔다.

이혼한 지 2년 후에 전남편의 친척 중 한 사람이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의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다. 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말해 주고 싶었다. 그 문제에 대하여 감독님과 상담하던 중에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전남편과의 관계와 결혼 생활을 위해 나 자신이 헌신했음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안심이 되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그가 한 말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었다. 주님의 속죄로 인해 마음에 입은 상처가 치유되었다. 나는 그 사람이나 또는 어느 누구 이긴 간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로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감의 회복

이혼 소송 심리가 있을 날을 며칠 앞두고 남편은 우리의 결혼에 대하여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적은 16쪽이나 되는 편지를 나에게 보내 왔다. 신권 지도자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결혼 생활에서 일어난 문제는 나 때문이며 남편이 부정을 저지른 원인까지도 내게 있었다는 남편의 주장을 믿기 시작했다.

의혹에 가득 차 괴로워하다가 경전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구세주의 말씀에서

나는 희망과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이 이미 큰 축복이 되고 힘이 되었음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자기 연민, 자책, 자멸감이 파도처럼 넘실대며 내게 엄습한다. 그러나 내 마음속의 해안에는 구세주께서 언제나 함께 계신다. 끊임없는 자책감에 시달리는 나를 도와 주시며 강화시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내게 나는 귀중한 존재이며 나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신다. 나는 주님의 음성에 더 귀기울이고 싶다. 내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음성이다."

나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다시 쌓는 기회를 갖는 축복을 받았다. 신권 지도자의 조언과 축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구세주의 크신 사랑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다시 얻게 되었다.

동정심을 발휘함

나는 그 일로 구세주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시는 것처럼 나도 닮아야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혼 절차를 밟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남편을 헐뜯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의 체면을 손상시킬 기회가 자주 생겼기 때문에 그 충고는 지혜로운 것이란 사실이 거의 매일 증명되었다.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억제하고 그의 긍정적인 장점을 강조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가 몹시 힘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내게 심한 상처를 입혔고 심각한 과오를 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의 가치를 알

아볼 수 있도록 도와 주면서 그런 말을 사용하는 나의 능력도 키울 수 있었다. 그를 높이는 말을 할 때마다 나는 구세주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대하여 갖고 있는 다정한 느낌을 허용할 뿐 아니라 부추기기까지 했다. 가족 기도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영의 속삭임을 듣고는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전 남편이 교회에서 다시 회원 자격을 완전히 찾게 되었을 때 어떤 친구가 나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나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를 위해 잘되었어. 안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뿐이야."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네 그런 태도가 얼마나 별난 것인지 아니?"

그러나 나는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같이 생각되었다. 기분도 좋았다.

나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나에게 가해진 상처로 고통받으면서, 역경을 통해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세주의 속죄에 대하여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은 회개하고 성품을 순화시킬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주었다. 역경은 다른 방법으로는 올 수 없는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즉 이해하지 못한 속죄의 여러 면을 이해하게 되었다. 분명히 나는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구세주의 속죄가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기준과 내가 노력하는 것 사이에 생기는 차이를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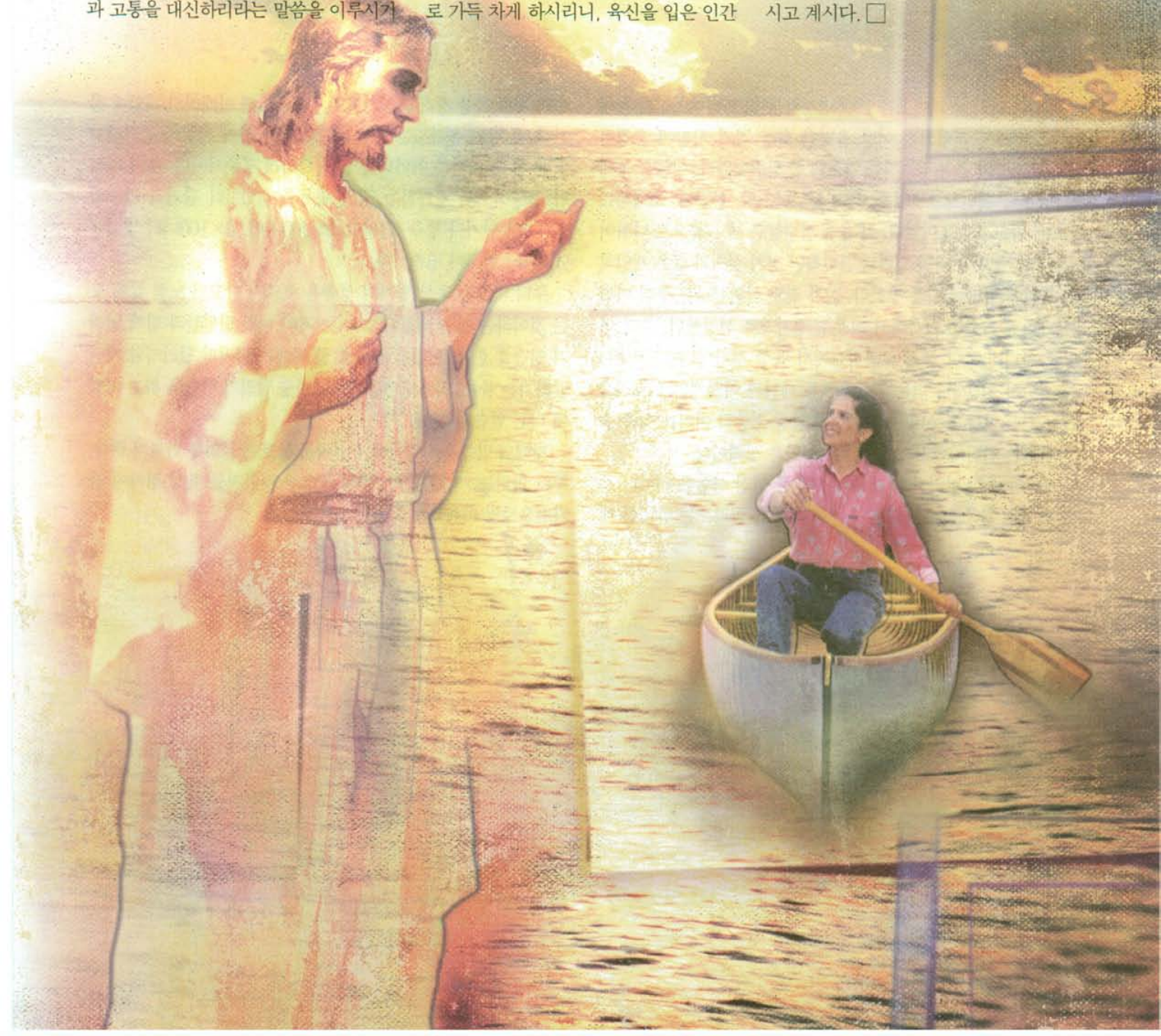
나는 구세주께서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신 것을 언제나 감사한다.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리니,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또한 그는 그의 백성을 얹어 맨 죽음의 사슬을 푸시려 죽음을 당하실 것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 차게 하시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

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을 아시려 함이었느니라." (엘마서 7:11~12)

참으로 구세주께서는 내게 그대로 해주시고 계시다. □



주디 마리 굽 피에즈(17세)는 푸에르토리코의 폰스에 있는 어느 한 고등학교의 육상선수인데, 달리기에서 남보다 앞서서 비결을 알고 있다. 주디 마리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수많은 종류의 메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디 마리는 한 가지 분야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어느 한 지역에서 그녀는 지금 자신의 신앙을 나눌 기회를 가지려고 하며 다른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달려도 피곤하지 않음

안 빌링즈

주디 마리 굽 피에즈는 1998년 2월 28일 인터아메리카나 대학에서 거행되는 어떤 유명한 육상 경기 시합에 초청된 800명 가량의 육상 경기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들은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크로익스, 세인트토마스의 섬들에 소재하는 200개 학교 출신들이었다. 이 운동 선수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경기 시간뿐만 아니라 노력과 전반적인 경기 실적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심사를 받았다. 심사 결과 심판관들은 주디 마리를 그녀가 속하는 그룹에서 최우수 경기자로 선정했다. 주디 마리는 자디네스 디 폰스 고등학교에서 육상 경기 선수로 지내는 동안 무려 110개나 되는 금·은·동 메달과 여섯개의 트로피를 획득했다. 이들 가운데 주디 마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상품 중의 하나는 인터아메리카나 대학에서 받은 상패이다.

오늘의 주디 마리가 있기 까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어머니 주디 피에즈 콜라도였다. 어머니 주디 피에즈 콜라도는 열네살 때

부터 계속 육상 경기에 참가했다. 1966년 팬 아메리칸 게임에 참가한 바 있는 콜라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경기 시합에 참가하고 있다. 주디 마리는 어머니를 닮아 단거리 경주자이다. 주디 마리가 통상적으로 참가하는 경기 종목은 400미터 단거리 경주와 200미터 단거리 경주, 그리고 4×400미터, 4×100미터 및 4×200미터 릴레이 경주이다.

주디 마리는 육상 경기의 성공은 오로지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거의 매일 팀원들과 함께 달리기 연습을 한다. 달리기 연습을 할 때에는 단거리 달리기와 계단 달리기는 물론, 적어도 3킬로미터 가량 달리기 연습을 하고 그밖에 다른 연습도 한다.

지혜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신체를 돌보는 원리를 가르쳐 준다. 주디 마리는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육상 경기에 참가함으로써 이해하게 되었다.





맨 왼쪽: 주디 마리가 400미터 단거리 경주 시합에서 달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왼쪽: 주디 마리가 획득한 수많은 메달 중에서 하나를 착용하고 있다.

위: 주디 마리와 자디네스 디 폰스 고등학교 출신의 팀 동료들

주님께 의지함

주디 마리는 재능이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큰 시합이 있을 때에는 긴장한다. 그래서 그녀는 경기 시합을 앞두고 그녀는 이런 기도를 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간구하옵나니 저와 저의 팀 동료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고, 이번 시합에서 우리가 즐겁게 잘 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디 마리는 기도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기도를 한 후에는 기분이 좋아요. 주님의 영이 저와 함께 힘을 느끼거든요."

주디 마리는 경기에서 이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한다. 그러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때에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며 이렇게 고백한다. "저는 제가 항상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어떤 선수들은 굉장히 빨리 달리죠!" 주디 마리는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나한테 말하지 마. 저리 비켜!' 하고 화를 내며 말해요." 그러나 주디 마리는 화를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기든 지든 기도하면 경기 후에 침착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 주세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여 주세요."

주디 마리가 속하는 푸에르토리코 폰스 스테이크 폰스 제2와드의 감독인 콘셉시 몰리나는 그 지역의 다른 고등학교에 체육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주디를 알게 된 것은 교회의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였죠. 주디가 자신의 학교를 대표하여 경주하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몰리나 감독은 주디 마리의 운동 선수로서의 능력에 언제나 감명을 받았지

만, 이에 못지 않게 그녀가 그토록 많은 영예를 얻고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같이 말한다. "주디 마리는 교회 회원이 되기 이전부터 언제나 겸손하고 침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1996년 두 명의 선교사가 주디 마리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그때 선교사들은 그 가족들이 복음에 귀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주디 마리는 당시 일을 이렇게 회상한다. "선교사들은 그때 복음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 그리고 물론 경에 대하여 이야기했어요." 주디 마리, 그녀의 모친, 남동생 제비어(13세), 여동생 마리 카리다(12세) 이들이 모두 복음 토론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주디 마리의 개종은 그녀 자신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 주디 마리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은 아주 아름다웠고 저는 하나님의 영을 매우 강하게 느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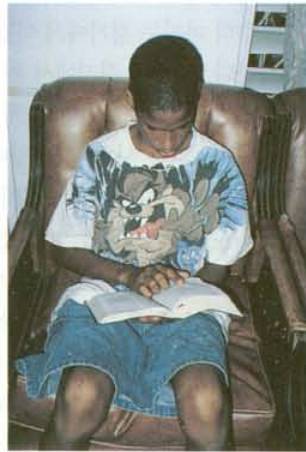
주디 마리는 니파이일서 8장에 나오는 생명 나무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개종에 비유해서 말한다. "선교사들이 복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보여 주어 암흑 속에서 빠져 나오게 해주었어요. 저는 조슈아

카터 장로가 저에게 침례를 주고 조슈아 스미스 장로가 확인 의식을 베풀어 주었던 때를 잊지 않고 있죠. 저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거듭남을 느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요."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월계반 회장인 주디 마리는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른 청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활동이 저조한 반원들에게는 그들이 언제나 환영받는다느 느낌을 갖도록 하려고 노력한다. "때로는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되었고 제가 그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교사님이 저를 도와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활동이 저조한 반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을 하죠."

주디 마리는 다른 회원들과 교제하는 데서도 힘을 얻는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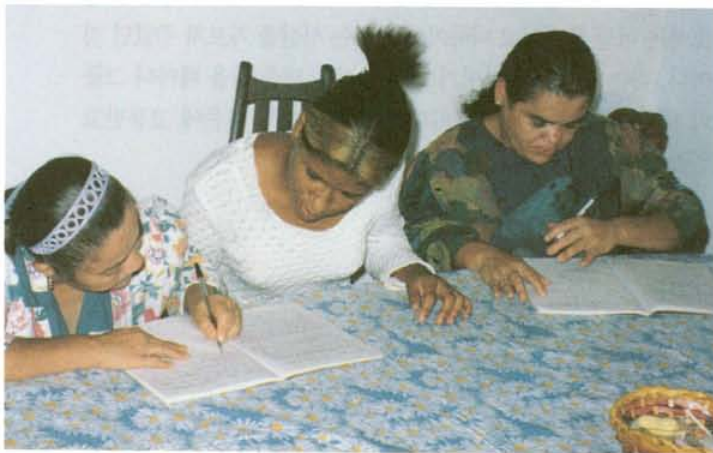
왼쪽으로부터: 주디 마리의 여동생 마리 카리다; 남동생 제비어; 자신의 상패 두 개를 들고 있는 주디 마리의 어머니; 주디 마리가 글로리아와 엘바와 함께 있는 모습.



녀는 “그들은 저의 가장 좋은 친구들이에요!”라고 말했다. 주디 마리는 친구들과 함께 영화 구경을 하고 피자과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그들은 함께 경전을 읽고 서로 조언을 해줌으로써 힘을 얻는다. 주디 마리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매일 아침 여섯 시에 세미나리에 참석한다.

그러나 주디 마리의 친구들 가운데는 교회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스테이크 선교사이기도 한 주디 마리는 자신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몰리나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주디 마리는 활동적이면서 외향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소녀입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기도 하지요.”

주디 마리는 교회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 주디 마리 자신이나 그녀의 말일성도 교회 친구들이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 가르침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유쾌한 일은 못되지만 그렇다고 주디 마리의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주디 마리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그들에게 ‘할말이 없다’고 할 뿐이지요.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



고 그것이 참되다고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의문점을 씻어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정에서 봉사할.

주디 마리가 친구들에게 봉사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가정에서 봉사할 시간을 갖지 못한 적이 없었다. 1996년에 주디 마리의 가족은 장애인 두 명을 호적에 입적했다. 한 사람은 35

세인 글로리아이고, 또 한 사람은 31세인 엘바이다. 글로리아와 엘바는 자매이며, 주디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다. 이들은 선교사 복음 토론을 듣고 이 가정의 다른 식구들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

주디 마리의 어머니는 이 두 여인을 보살피고 주디 마리는 이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주디 마리는 “이런 일이 때로는 힘들다”고 말하면서 이들을 돕고 가르치려는 소망과 능력이 주님의 영으로부터 온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이런 소망이 동기가 되어서 주디 마리는 대학에 들어가 간호사가 되는 공부를 하고 싶어한다.

“특별한 사람들”

“복음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보다 더 주의 깊게 들어요. 우리 가족의 유대는 전보다 더 튼튼해졌어요.” 라고 주디 마리는 말했다.

워드 상호 부조회 서기인 그녀의 어머니도 복음이 자신의 가정을 환없이 축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같은 의견이다. 주디 마리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생활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면,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디와 그 가족들은 집회소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그들은 다른 교통편이 없을 때에는 집회소까지 걸어가 모임에 참석한다. 몰리나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그 가족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유하지 않은데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부름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신체적인 힘과 영적인 힘

주디 마리의 튼튼한 다리는 그녀에게 육상 선수로서의 성공을 가져다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은 그녀에게 영적인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주디 마리가 좋아하는 성구 에스라 10장 4절에는 이와 같이 씌어 있다.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대해 주디 마리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그 성구를 좋아 하는 것은 그 성구가 강하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로써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요.” □

자몽 신드롬

남편을 흠잡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더 감미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젊은 아내였을 때 배웠다.

로라 비 월터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나는 부부가 상대방의 불쾌한 습관이나 버릇에 대해 서로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것을 권고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그 기사의 요지는 부부가 자신의 불쾌한 부분을 알게 되면 배우자에게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이론은 그럴듯했다. 나는 그 기사에 대하여 남편과 이야기했다. 남편은 잠시 주저하더니 한번 시험해 보자고 동의했다.

그때 우리는 서로가 알고 있는 나쁜 습관을 다섯 가지씩 들기로 했던 생각이 난다. 내가 먼저 시작했다. 50년도 더 지난 지금에 와서 기억나는 것은 내가 맨 처음 지적했던 불평 거리는 자몽이었다는 것뿐이다. 그 당시 나는 남편의 자몽 먹는 방식이 싫다고 말했다. 남편은 자몽을 쪼개서 스푼으로 먹지 않고 껍질을 벗겨서 한 번에 한 토막씩 먹는 버릇이 있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자몽을 먹는 사람이 없었다. 남편이 그렇게 자몽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 평생을,

아니 영원을 보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었다. 나머지 불평거리리는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렸으나, 틀림없이 사소한 것들이었을 것이다.

다음에는 남편 차례였다. 이미 50년도 더 세월이 지났지만 남편의 사려 깊으면서도 당황하는 표정이 아직도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남편은 그때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게서 내가 싫어하는 버릇을 하나도 생각해 낼 수가 없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변명해야 좋을지 몰라 얼른 몸을 돌렸다. 남편은 나의 특유한 버릇, 의심할 여지 없이 그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이상한 버릇들을 개의치 않고 지내왔는데, 나만 그런 사소한 일에 대해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왔던 것이다.

이런 경험을 겪은 후로 흠잡는 버릇을 완전히 고쳤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때의 일은 결혼 생활 초기의 나에게 배우자의 습관이나 개성이 자신의 그것과 사소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것을 그대로 보아 주고 평소에는 이를 무시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나는 부부들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내가 지금 자몽 신드롬이라고 일컫는 증상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역경 속에서 구세주께 의지함

전 세에서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와 육신을 받고 경험을 쌓으며 시험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일부로 육신과 영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역경을 헤쳐 나가려 애씁니다. 질병과 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혹은 우리가 버틸 힘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온갖 시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갖가지 세상사는 경험과 실례로서 필요한 것이며, 충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받기 위한 준비로서 필요한 것입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1997년), 262쪽)

주님께 구함

우리가 하늘을 향해 이해와 도움을 간구하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위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교회와 성약 24:8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1998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보조관 수술을 받아야 했던 자신의 세 번째 심장병 발병에 따른 그간의 경험과 자신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당시 헤일즈 장로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 후 집에서 요양하면서 인생의 뜻과 영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또 육신의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영혼의 더욱 큰 고통과 고뇌

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헤일즈 장로는 환자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돌보아 주는 많은 사람들-의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친구 등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영과 육신의 치유”,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16쪽)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금식과 기도, 경전 공부, 성전 방문, 신권 축복과 축복사의 축복,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의 도움, 부모 또는 신권 지도자의 권고 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고 주님의 뜻을 배우며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편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제거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는 힘을 찾도록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속죄의 권세

가장 숭고한 영감을 주는 사랑의 증거는 구세주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니, 속죄의 권세를 통해 우리는 병고침을 받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전과 평화와 기쁨은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명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것이 곧 우리에게 무질서의 혼란, 개인적인 문제, 질병, 가정적인 어려움, 취업 문제 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확고하게 닿을 내릴 경우, 우리는 자신에게 닥치는 어떠한 역경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계속 유지할진대 우리의 식견은 더 넓어질 것이고, 영원한 전망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며, 이와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의 배경을 보고 우리는 역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것이 언제 실현되겠습니까?”, 앤사인, 1996년 12월호, 61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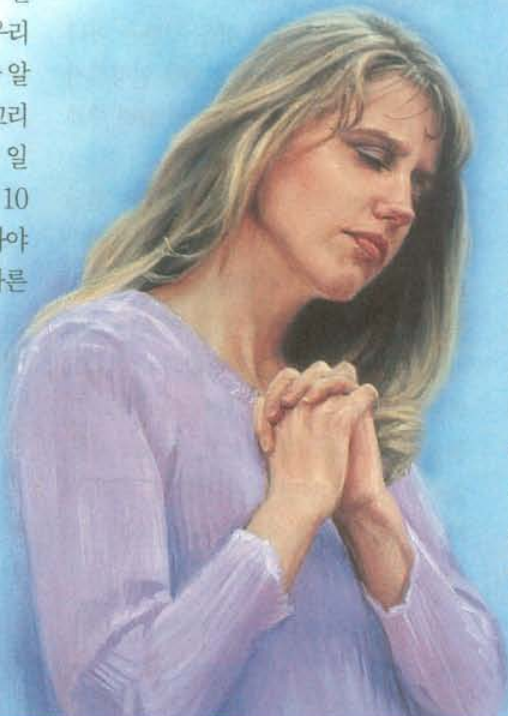




사진 촬영: 제드 클리크

질의 응답

어떻게 험담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경전에는 우리가 험담을 피해야 한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험담을 시작하거나 험담을 퍼뜨리는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대답

시편의 저자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꾀사한 말에서 금할찌어다”(시편 34:13) 구세주께서도 우리에게 험담의 악을 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회복된 교회의 율법을 세우면서 그분은 “네 이웃을 욕하거나 해치지 말라.”(교리와 성약 42:27)고 말씀하셨습니다. 험담에는 쓸데없는 대화가 포함되며 그것은 과장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뿐 아니라 험담을 하는 사람의 명예도 손상 시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짓말이나 험담하는 말은 활짝 핀 민들레꽃이 바람에 사방으로 날리는 것과 같이 빨리 흩어진다. 이러한 꽃씨나 소문은 다시 원상태로 모을 수가 없다. 중상을 함으로써 끼치는 악영향은 측량할 길이 없다.”(용서가 낳는 기적(1969년), 56쪽)

존 테일러 대관장은 일찍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 교

회 회원들의 명예는 우리 자신의 것만큼 소중하며, 우리 자신이 들었을 때 기분이 상하는 말이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제임즈 알 클라크 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 메시지*, 6권(1965~75), 3:84)

많은 독자들이 만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다른 사람들이 험담하는 상황에 말려든다면 화제를 바꾸어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라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험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게 됩니다.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은 험담을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더욱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험담이 없을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행복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험담할 때 그 사람은 사탄과 동반하고 있는 것이며 악마와 똑같이 불행하고 비참할 뿐입니다.”(대회 보고, 1944년 4월, 29쪽) 우리가 험담에 참여할 때 우리 역시 악마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것을 피하는 일보다 험담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는 일이 때로는 더 어렵습니다. 자신에 관해서 부정적이거나 사실이 아닌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노심과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44)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에게 관한 험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도움과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지시에 따라 우리를 비난하는 자와 대화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영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에베소서 4:32) 해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방, 다른 민족에 대한 중상, 악의에 찬 말, 고의적인 험담, 그리고 상스럽고 좋지 못한 소문 퍼뜨리기 등은 우리들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1997년), 664쪽) 험담을 피하고, 그것이 시작될 때 바로 중지시키고, 다른 쪽 뺨을 돌림으로써 누군가가 우리에게 관한 험담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한 마음 한 뜻" (모세서 7:18)이 되도록 해주며 개인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함께 살기에 합당하게 해줍니다.

독자들의 대답

험담하는 것은 다툼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결국에는 우리를 개인적인 배도로 이끌 기도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 관해서 험담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저에게 자제심을 주시고 힘을 주시도록 간구할 것입니다.

그블로간 코코우,
코우마시 와드,
아버잔 아이보리 코스트 스테이크

타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진실인가? 선한 일인가? 유용한 일인가? 만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험담을 시작한다면 화제를 바꾸거나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험담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십시오.

주일학교 반,
에버스발드 지부,
독일 베를린 스테이크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여러분이 험담한 그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눌 때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오스카 오리츠,
이브 킬 와드,
핀란드 탐피루 스테이크

우리는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우정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44 참조)

로레나 벨 퀘스 레빌라,
포츠틀라 지부,
멕시코 푸에르토 에스콘디도 지방부

저는 선교부장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나쁜 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다섯 가지를 찾았다고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들의 단점을 고치는 좋은 방법입니다.

셀소 다니엘 문호스 레파티 장로,
브라질 쿠리티바 선교부

우리는 험담을 듣게 되면 더 비판적이



그블로간 코코우



오스카 오리츠



로레나 벨 퀘스 레빌라



셀소 다니엘 문호스 레파티 장로



심문미



수제트 사트사틴



수첸친이



엘리사베타 마란곤



에프 탈리카올라 장로



네스토 파비 로드리게스



루이스 램 클레토 무에세스



마틴 아폴로



그레이스 알민



안드렐리 페르난데스 리베이로 비아나



말라리아티아나 엔 란드리아나리테라

되기 쉽고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여 우리가 그들을 염려하고 있음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심문미,
풍향 와드,
한국 광주 스테이크

말의 힘을 과소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을 해치는 부정확한 말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험담 퍼뜨리기를 멈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와드 회원들을 사랑으로 대하여 우리 와드가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 (교리와 성약 88:119)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수첸친이,
타이난 제2와드,
타이완 타이난 스테이크

우리가 험담을 할 때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낮추어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험담하는 것들을 들을 때 우리는 내적인 화평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분출시키면 우리를 험담한 자들에게 그 험담이 진실임을 증명해 주는 핑계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태도에서 그 험담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적 화평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에프 탈리카올라 장로,
통가 누쿠로파 선교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으나, 험담을 피한다면 우리는 더욱 행복해질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깨끗하고 유덕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필요할 때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침묵이 동의나 용인을 뜻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루이스 램 클레토 무에세스,
루퍼 제1와드,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 도밍고 스테이크

저는 결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하거나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영의 속삭임에 민감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영을 간직할 때 교훈적이고 교화적인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 알민,
가판 제3와드,
필리핀 가판 스테이크

우리 자신에 관한 험담에 맞서거나 극복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

복음 지향적인 활동의 밤



사진 촬영: 머린 미컴

여러분이 청소년 활동이나 워드 또는 지부 활동의 밤에서 할 만한 프로그램을 생각해 낼 수 있을까? 여러분이 복음에 중심을 둔 활동을 생각해 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언을 활용하도록 한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복음 원리에 기초를 둔 여러분 나름대로의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다.



사진 촬영: 제드 클리크

재능과 지도력을 개발함

-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돌아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외국 요리 강습회를 개최한다. 외국인이나 귀환 선교사에게 와서 맛있는 외국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다.
-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시간대를 업무 시간으로 하고 있는 기업체(신문사, 라디오 방송국, 식료품 가게 등)를 방문하여 그런 종류의 일에 대하여 알아본다.
- 구급법에 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초대한다.
- 음악을 지휘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한다.

그런 후 상상력을 동원하여 일반 가정 용품으로 악기를 만들어 "오케스트라"를

조직한다.

- 선교 사업이나 경전 공부나 간증 등을 주요 주제로 한 워드 또는 지부 노년의 모임을 계획한다.
- 구직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한다.

보충 가족 활동

- 가족 역사의 밤을 갖는다. 가족 역사 탐구 및 개인 역사 작성 방법을 배운다.
- 성전에 참석하는 부부나 상호부조회 가사 모임에 참석하는 자매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자원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단체 활동을 계획한다.
- 모두 함께 지역 사회의 지도자나 감독, 부모님에게 편지 쓰는 밤을 갖는다.
-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공과를 가르칠 수 있는 가정의 밤을 위한 실습 모임을 준비한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

- 지역 사회의 자선 기관이나 비영



사진 촬영: 머린 미컴



사진 촬영: 제닛 토마스

리 기관을 돕는다.

■ 여러분의 워드 또는 지부에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 감독이나 지부장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의 가족을 위해 요리, 청소, 정원 가꾸기 등과 같은 봉사를 한다.

■ 외롭거나 슬픔에 젖은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 준다. 성탄절까지 기다리

지 말라. 언제라도 기쁨을 나눌 수 있다.

■ 고아원이나 무주택자 숙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시중드는 일을 자원한다.

■ 여러분이 사는 지역 사회의 한 곳을 택해 그 곳에서 쓰레기를 줍는다.

■ 병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준다.

간증을 강화함

■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선교사들에게 선교 사업 준비 워크숍을 갖도록 요청한다.

■ 선교사들이 구도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특별 활동을 주축한다.

■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표현하

는 그림을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린다. 그런 후 그 그림이 어떤 경전의 이야기를 그리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알아맞혀 보게 한다.

■ 초등협회의 함께 나누는 시간 동안에 발표할 물문경 이야기에 대한 연극을 만든다.

건전한 환경에서 친구를 사귀

■ 데이트에 관하여 물어 볼 수 있는 배심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청년들이 청년들에게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형제들이 자매들에게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청년들이 청년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의 요리법을 한 가지씩 적어 오게 하여 요리책을 만든다.

■ 물문 메시지 즉석 의견 발표 모임을 갖고 여러분의 물문 메시지 포스터를 만든다.

■ 여러분에게 유익했던 활동의 밤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가능하면 활동에 대한 사진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Activity Ideas,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

223, USA □





성전 가먼트

“마음속의 약속을 외부로 표현함”

몇년 전 새롭게 부름받은 성전장과 메이트론을 위한 세미나에서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님이 자신이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관해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으로부터 한 가지 질문만 받으셨다고 합니다. “가먼트를 합당하게 착용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후 그 분은 리 대관장님에게 자기의 합당성에 대하여 물어 보지 않으시냐고 여쭙자 리 대관장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시면서 가먼트를 어떻게 입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교회뿐 아니라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표현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합당성과 복음에 대한 헌신의 척도가 됩니다.

성전 가먼트를 입는 것에 관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답을 주는 상세한 착용 규칙을 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권 지도자들이 입어야 할지 또는 입지 않아야 할지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조금이라도 그 규칙에 어긋나면 처

벌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회원들이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다 중요한 사항을 소홀히 하는 사람입니다.(마태복음 23:23~26 참조)

그러나 대부분의 말일성도들은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도덕적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들은 주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을 신임하는 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신뢰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교회의 조직”, 밀레니얼 스타 1851년 11월 15일, 존 테일러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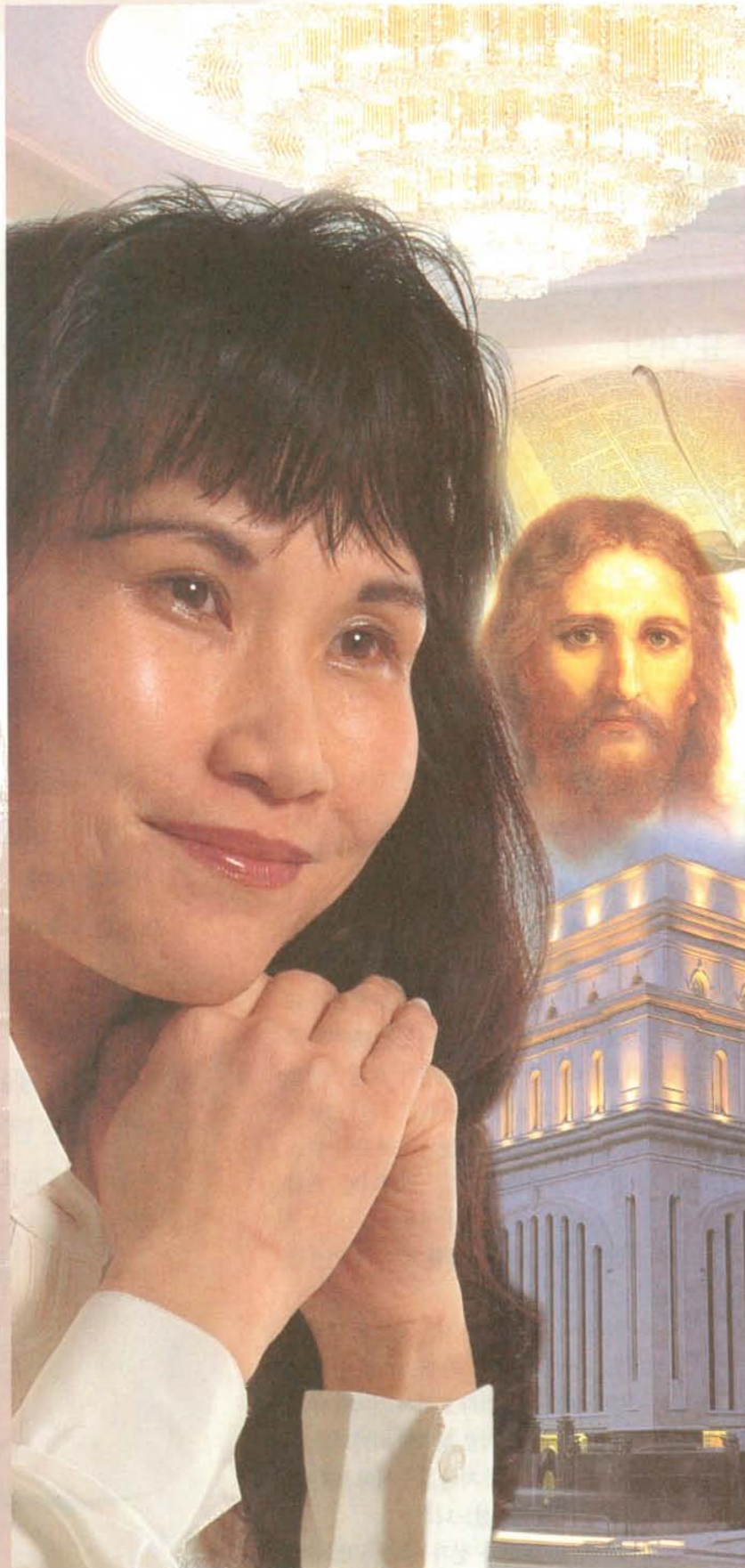
레이맨인인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멸망되는 자가 스스로 멸망을 이룬 것이요, 간악을 행하는 자가 스스로 이 일을 행하는 것임을 너희는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니, 보라 너희는 자유로워 임의로 행함이 허가되었고,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식을 주시며 또한 너희를 자유로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너희가 선과 악을 구별하며,

교회 회원들은
주님과의 성스러운
성약을 통해
약속과 보호에
대한 축복을 받으며
그러한 성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을
받는데, 이것은 만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을 임의로 택하게 하시었고, 선을 행하여 너희를 위해 선을 쌓으며 선한 것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하거나, 악을 행하여 악을 쌓을 수도 있게 하셨느니라.”(힐라맨서 14:30~31)

저는 성전 가먼트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신앙심이 강한 말일성도는 가먼트를 입으며 그것도 합당하게 입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행동을 규제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성스러운 의복의 가치를 이해하고, 선을 행하여 선을 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전 가먼트의 성스러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성전 가먼트를 다른 옷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여 아무 생각 없이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신권의 가먼트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 갑주,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현대 예언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각 제목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가먼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성도들이 가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종을 통해 우리가 “의의 갑옷을”(니파이이서 1:23; 또한 에베소서 6:13 참조) 입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먼트를 합당하게 입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우리는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의 침략군이나 외국의 해군이 아닙니다. 총탄이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지도 않고 우리의 집과 주변에서 폭탄이 터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경계하지 않으면 영적인 패배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 넣을 세력을 가진 군대와 우리는 생사를 건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높은 데 거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권력자, 통치자,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에베소서 6:12 참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외설물의 맹렬한 공격과 범죄와 불법적인 마약이나 알코올 등의 남용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다른 음흉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협적인 영향력과 그밖의 다른 급박하고 위협한 요소들이 이와 같은 "고통의 때"(디모데후서 3:1)에 우리가 맞서야 할 "마귀의 체계"(에베소서 6:11)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에베소서 6:13)라고 권고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닌 예언자의 권능으로 우리가 사는 현대에 존재하게 될 사악한 상태를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성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에베소서 6:14~16)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17절) 머리에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17절)고 항상 기도하라고(18절 참조) 권고했습니다. 그는 진리와 의와 믿음과 영과 기도로 만들어진 갑옷이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교묘하게 만들어 던지는 "불화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또 다른 갑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입는 성전 가먼트, 곧 성스러운 신권의 가먼트로 알려진 특별한 내의입니다. 밤낮으로 입고 있는 이 가먼트는 중요한 세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가먼트는 주님의 성스러운 집에서 주님과 맺은 성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며, 그리스도의 모든 겸손한 추종자들의 생활을 특징 짓는 겸소한 의복과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먼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 가먼트는 순결을 상징하고 정숙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하

나님의 속성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에베소서 6:13; 교리와 성약 27:15 참조)라고 한 바울의 권고를 나타내는 표징으로 간주될 정도로 존중받는 것입니다. 가먼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 순종과 진리와 생명과 제자 됨에 관한 복음 원리들을 지향하는 몇 가지 단순한 표시가 있습니다."(이블린 티 마샬, 몰몬 이즘 백과 사전에 나오는 "가먼트", 테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편집 5권(1992), 2:534)

인간의 영혼을 위한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하여는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전쟁은 아담의 시대에 시작되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대를 거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받은 계시에 의해 시작된 때가 칸경륜의 시대에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불화살을 견디어 낼 수 있는 보호막에 관한 것은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고 현대의 계시(교리와 성약 27:15~18)에서 되풀이된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전 가먼트로 상징된 "의의 갑옷을"(니파이이서 1:23) 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 지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군인들이 착용했던 투구와 방패와 가슴판을 포함한 무거운 갑옷에 따

라 전투의 결과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생활의 실제 전투에서는 영적인 갑옷,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대업에 대한 확신과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로 구성된 갑옷을 입는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성전 가먼트라고 불리는 갑옷은 옷으로서 편안함과 따스함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입고 있는 사람이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강화시켜 주고 사악한 세력들을 저지하며 의를 위해 굳게 서도록 강화시켜 줍니다.

역사적 배경

“주님의 일”(니파이이서 4:16)에는 이 세상이 시작한 태초로부터 성스러운 의복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전의 여기 저기에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특별한 가먼트를 입었다는 기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 아담과 이브에게 성스러운 옷이 입혀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창세기 3:21)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은 속죄와 회생과 회개와 용서에 관한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이 옷을 받았 습니다.(모세서 5:5~8 참조) 말일성도에게 주어진 성전 가먼트도 비슷한 맥락에서 받는 것입니다. 가먼트는 그것을 입는 사람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집에서

맺은 구속력이 있는 성약을 지키며 약속된 축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미덕을 소중히 여기고 나누어야 함을 상기 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다른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가먼트와 제사장의 예복을 입혀서 그들이 회막에서 의식을 집행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 을 나아오게 하여 …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출애굽기 28:1~3)

교회 회원들은 구약 시대에 선택된 지도자들이 입은 아론의 의복과 예복에 대한 언급을 할 때에는 “화려한 의복”, “영광의 옷”, “영화로운 옷차림”, “구원의 옷”(몰몬 이즘 백과 사전, 2:534~5)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회막에서 의식을 집행하거나 성전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입은 의복에 특히 더 잘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식어들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며 성도가 되고자 애쓰는 자”(교리와 성약 125:2)가 매일 입는 성스러운 의복에도 적용됩니다. 성스러운 의복은 성전에서만 입든 평상복 아래 매일 입든 그것에 관계없이 그 영예롭고 영화로운 성격이나 귀중한 본질은 그것들을 만든 재료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앨마서 5:15)으로 볼 때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해되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 고대 경전학 명예 교수인 휴 니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먼트는 그 의미를 제외하면 무력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맺은 성약에 참되고 충실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먼트를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며, 여러분이 맺은 성약에 참되고 충실할 때에만 가먼트가 유익할 것입니다.”(“거룩한 의복:예비 보고서”, 고대 탐구 및 물문 연구 재단 [1986년], 13쪽)

그렇습니다. 인간이 신권과 성전 의식을 받았을 때에는 언제나 모든 시대를 통틀어 예언자들과 다른 의로운 성도들이 가먼트를 입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을 때 성스러운 성전과 관련된 신성한 신권 의식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새롭게 계시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에는 가먼트에 관한 지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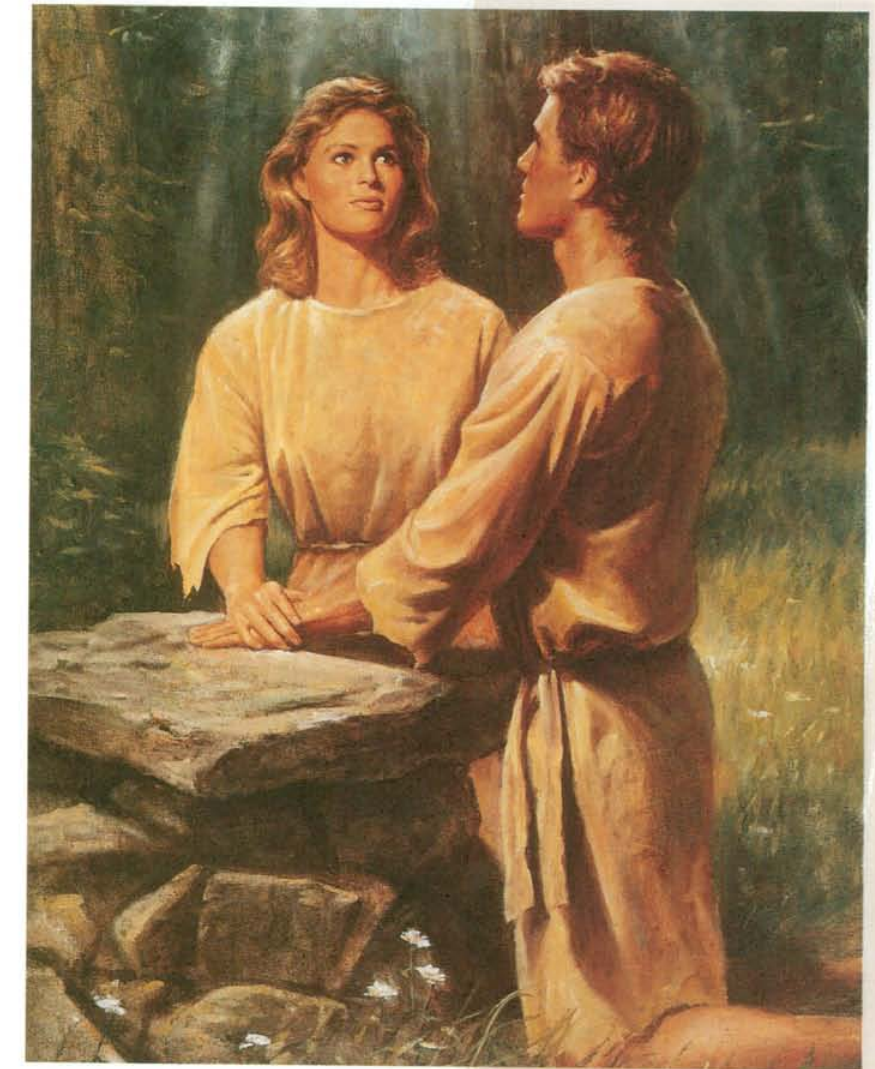
가먼트와 의복에 관하여는 경전에서 많은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녹은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나는 영광으로 옷을 입었더라.”(모세서 7:3 영문 참조)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심판의 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결함과 별거벗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요, 의인은 순결의 옷 곧 의의 옷으로 입혀져 저들의

기쁨과 의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되리라.”(니파이이서 9:14) 이사야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 [신다고]”(이사야 61:10) 말했습니다. 엘마는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고 흰 옷을 입은 … 모든 성스런 예언자들”(엘마서 5:24)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위에 열거한 것과 다른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 속의 정결함과 순결함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 위에 씌워진 흠 없는 덮개를 시사하는 데 그 의미는 선량한 삶과 하나님께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대 예언자들의 가르침

많은 교회의 회원들이 성전 가먼트와 관련된 보호와 축복의 약속을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실을 알고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가먼트를 부적절하게 입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입었다 벗었다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대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들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영적인 보호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1974년 7월 3일자 대관장단 서한을 통해 교회 회원들은 가먼트의 신성한 특성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가먼트를 착용하는 사람은 그것이 신성하다는 것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킬 때 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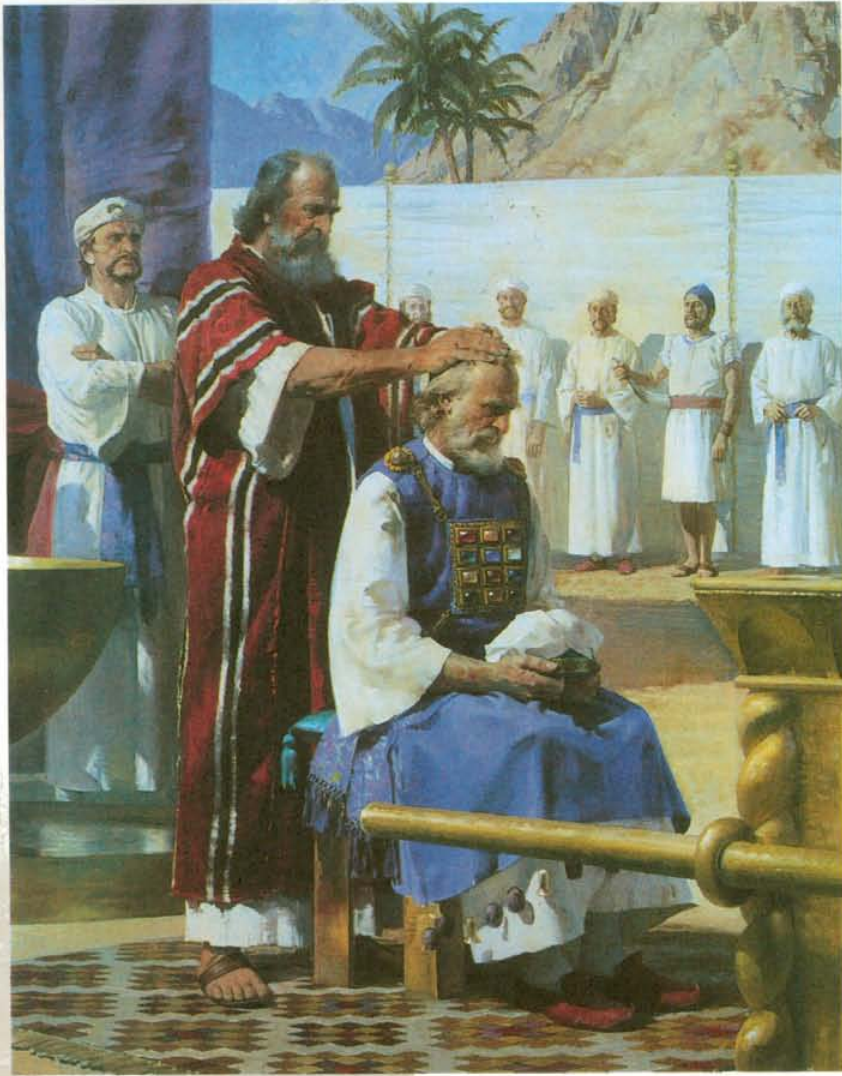


축복은 어떠한 불편이라도 그것을 보상할 만큼 충분히 큼니다. 우리가 맺은 성약을 깨뜨리는 것은 성약을 지킬 때 약속된 보호와 축복을 박탈당하게 합니다.”(대관장단 서한, 1974년 7월 3일)

또한 신권 지도자에게 보낸 1988년 10월 10일자 서한에서 대관장단은 가먼트를 어떻게 입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전에서 가먼트를 입는 의식을 교회 회원들은 평생 동안 그것을 입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 성약은 가먼트를 내의로서 밤낮으로 입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이 신성한 성약은 회원과 주님 간에 맺은 것입니다. 회원들은 가먼트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모든 질문에 스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창세기 3:21) 그들은 속죄와 회생과 회개와 용서에 관한 교육을 받을 때 이 의복을 받았다.(모세서 5:5~8 참조)



고대 제사의 복장을 “영광의 옷”과 “구원의 옷”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어휘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며... 성도가 되고자 애쓰는 자”(고리와 성약 125:2)들이 입은 옷에도 적용된다.

로 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 보호와 축복에 대한 약속은 합당성과 성약을 지키고자 하는 충실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가먼트를 입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벗을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들은 정원에서 일하기 위해, 또는 수영복 차림이나 단정치 못한 복장으로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기 위해 가먼트의 전부나 일부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복장 안에 가먼트를 잘 입은 상태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락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그것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수영과 같은 운동을 위해 가먼트를 벗어야 할 때

는 가급적 빨리 가먼트를 다시 입어야 합니다.

“단정함과 신체를 적절히 가린다는 원리는 성약에서 절대적인 요소이며, 착용하는 모든 의복의 본질을 규정합니다. 교회의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은 회원들은 가먼트를 주님과 맺은 신성한 성약을 상기시키는 의복으로, 또한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의복으로 입어야 합니다.”(대관장단 서한, 1988년 10월 10일) 가먼트를 어떻게 입느냐 하는 것은 구세주를 따르겠다는 마음속의 결심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가먼트를 합당하게 입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확고한 견해를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스러운 신권의 가먼트를 주셨으며 여러분은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에는 어리석고 헛되고(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납하십시오.) 세상적인 저속한 관행을 따르기 위해 그것을 망쳐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을 모방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순결과 마찬가지로 또 순수한 생활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신성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을 주저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러한 것들을 신성하게 여겨 하나님께서 주신 형태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유행에 맞서는 도덕적인 용기를 가집시다. 특히 유행이 성약을 깨뜨리고 그리하여 중대한 죄

를 짓도록 강요할 때, 그에 맞서는 도덕적인 용기를 가집시다.”(“패션과 성약과 의무의 위반”,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6년 8월호, 813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그가 쓴 책 *거룩한 성전*에서 가먼트를 합당하게 착용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가먼트는 거룩한 성약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정숙함을 증진시키며 착용자에게 방패와 보호막이 된다.

“회원들이 그러한 가먼트를 입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여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입는 유행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정하지 않거나 모양이 극단적인 의복만 가먼트와 함께 입을 수 없을 뿐이다.”(*거룩한 성전*[1980년] 75쪽)

가먼트에 대하여, 그리고 가먼트를 어떻게 입을 것인가, 또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칙이 분명히 밝혀졌으니, 이제 그 원칙에 따르는 것은 착용자와 그들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하여 일일이 지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규정이 하찮다는 이유로, 또는 모세 율법과 같은 세세한 행동 지침이 없다는 핑계로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심령이 가득 차게 하여(엘마서 42:29~31 참조) 하나님과 그의 예언자들

이 정하신 대로 그들의 복장과 행동을 다스릴 것입니다.

성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

저는 가먼트를 우리가 성전을 떠날 때 성전의 일부를 지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도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 새겨진 영감에 찬 가르침과 신성한 성약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지니고 가는 확실한 것은 가먼트입니다. 비록 항상 성전에 있을 수 없지만 그 일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기 위해 항상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가먼트라는 단어는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하얀, 깨끗한, 순수한, 정숙한, 덮는, 의식의, 성스러운, 신권의, 아름다운, 완벽, 죄 없는, 전신갑주, 성약, 약속, 축복, 존경, 영생 등과 같은 어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날 말들은 모두 진지하게 성도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선택된 믿는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요한계

시록 3:4~5)

모든 교회 회원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사데 성도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는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가먼트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자 엘마는 그 당시의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의 가먼트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고, 희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저의 의복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함이라. 선조들이 말씀하신 바,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려고 오실 이의 피로 사람들의 옷이 씻겨져 정결케 되어야 하리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왔느냐? 바로 지금 너희가 죽게 된다면 너희가 더할 나위 없이 겸손했노라고 말할 수 있으며, 너희의 옷이 백성을 죄에서 구하려고 오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희게 되었노라고 할 수 있겠느냐?”(엘마서, 5: 21, 27)

우리의 가먼트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가슴속에서 “시온은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고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4)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확인합니다. □

오래된 데저렛



마을

항소, 정원, 전통 의상을 입은 자원 봉사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뜻 깊은 건물들이 있는 솔트레이크시티의 오래된 데저렛 마을은 선조였던 개척자에 관해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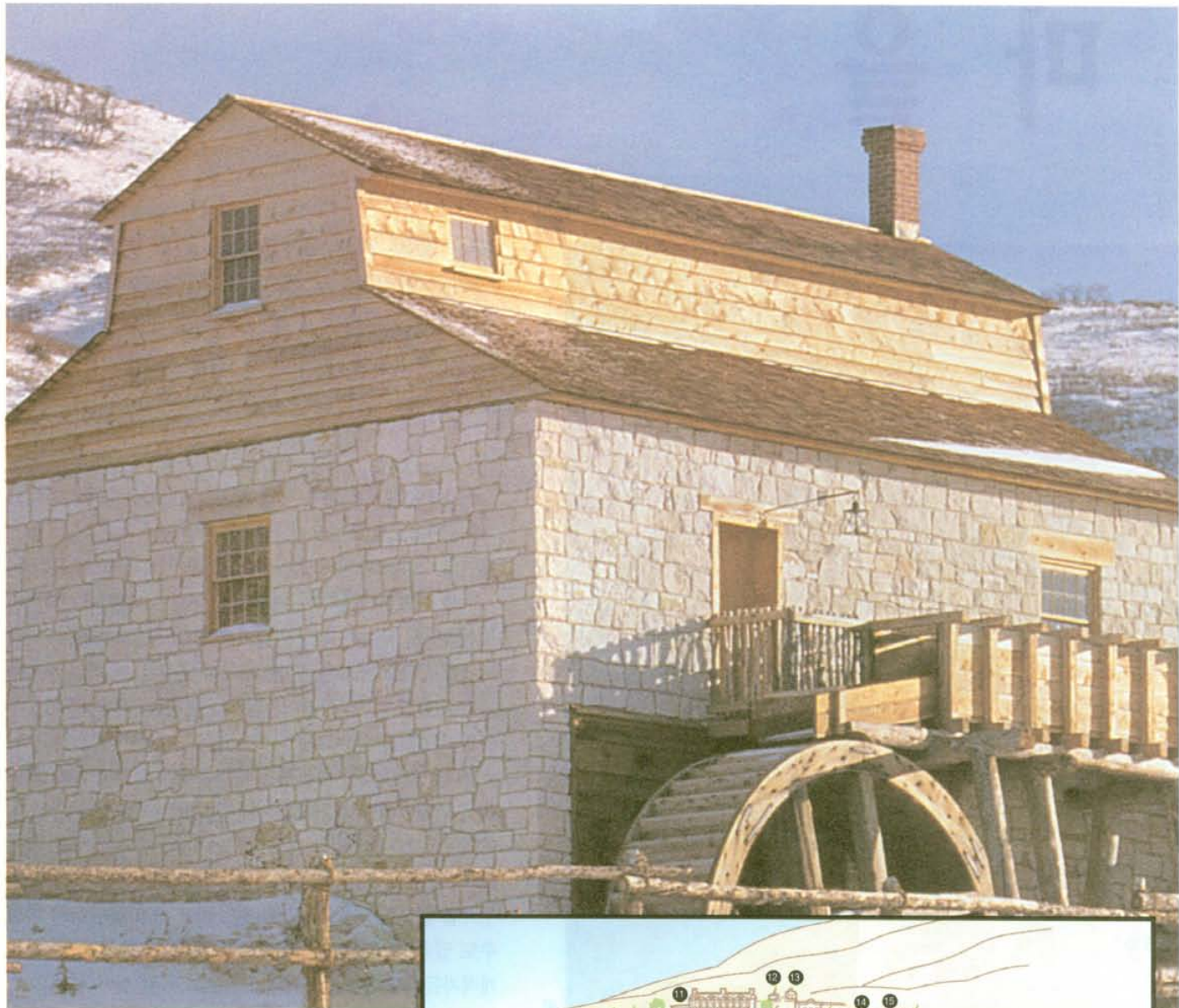
오래된 데저렛 마을은 말일성도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기념비 옆에 위치하고 있다. 1847년에서 1869년 사이에 있었던 집들이나 건물들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거나 재건축해서 구성한 오래된 데저렛 마을은 우리에게 지나간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개척자 복장을 한 자원 봉사자들이 건물들, 주변 담장 안에 사는 동물들, 꽃과 채소가 무성한 정원들을 안내해 준다.

이 몇 쪽에 있는 사진들은 독자들에게 오래된 데저렛 마을의 먼지투성이의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분은 그곳에 있는 동안,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를 듣거나 큰 황소에 깜짝 놀라거나, 또는 과연 이 작은 통나무 오두막집에서 몇 식구나 살 수 있었을까 하고 궁금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아주 헌신적이었던 개척자들과 훨씬 더 큰 연대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

배경: 많은 초기 서부 개척자들이 하이람 스미스의 미망인인 매리 필딩 스미스가 소유했던 이 집과 같은 작은 어도비 벽돌집에서 살았다. **왼쪽 위 삽입 그림:** 움집이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임시 주거지가 개척자 마을에는 아주 많았다. **왼쪽 아래:** 그 시대의 복장을 한 자원 봉사자들은 오래된 데저렛 마을의 현장감을 더해 준다. **오른쪽 아래 삽입 그림:** 학교와 와드 건물 두 가지 용도로 쓰였던 1865년에 세워진 히버 이스트 와드 학교를 복원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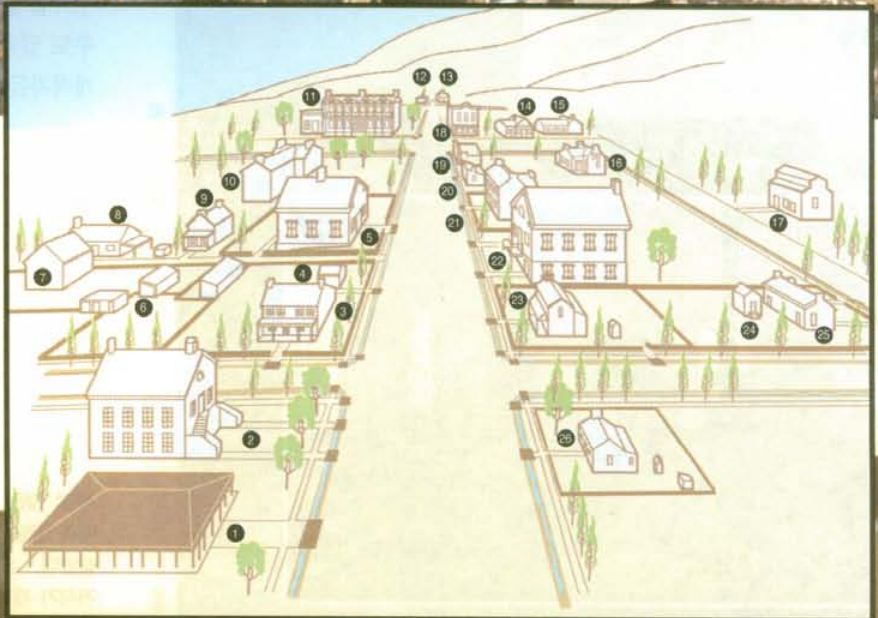


집과 움집 사진 촬영: 리벤 포터; 핀트: 데이비드 핀트; 황마들 사진 촬영: 글라 폴블린



오래된 데저렛 마을의 지도 풀이

- | | |
|------------------|------------------------|
| 1. 농장 | 15. 가구점 |
| 2. 파인 벨리 예배당 | 16. 닐스 오 앤더슨의 집 |
| 3. 밀로 앤드러스의 집 | 17. 맨타이 포트 방앗간 |
| 4. 앤스 오두막집 | 18. 일반 상점 |
| 5. 히버 이스트 와드 학교 | 19. 은행 |
| 6. 가축 우리 | 20. 이발소 |
| 7. 새비지 마구간 | 21. 존 비 페어뱅크스의 집 |
| 8. 대장간 | 22. 사교장 |
| 9. 공공 화장실 | 23. 사무엘 주크스의 집 |
| 10. 데저렛 뉴스 빌딩 | 24. 곡물 창고 |
| 11. 헌츠맨 호텔 | 25. 찰스 시 리치의 집 |
| 12. 개척자 움집 | 26. 존 더블류 가디너의
오두막집 |
| 13. 매리 필딩 스미스의 집 | |
| 14. 약국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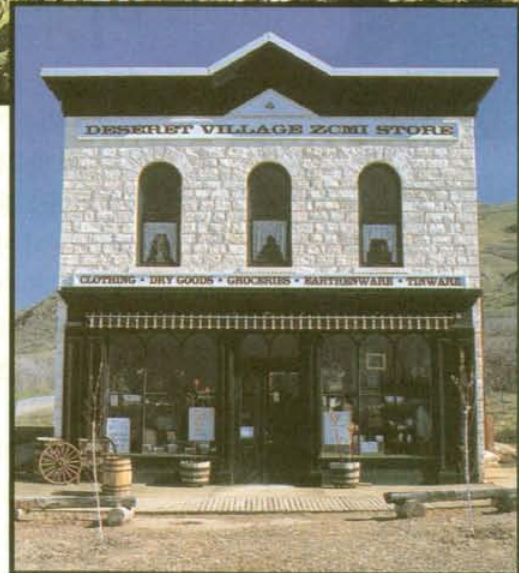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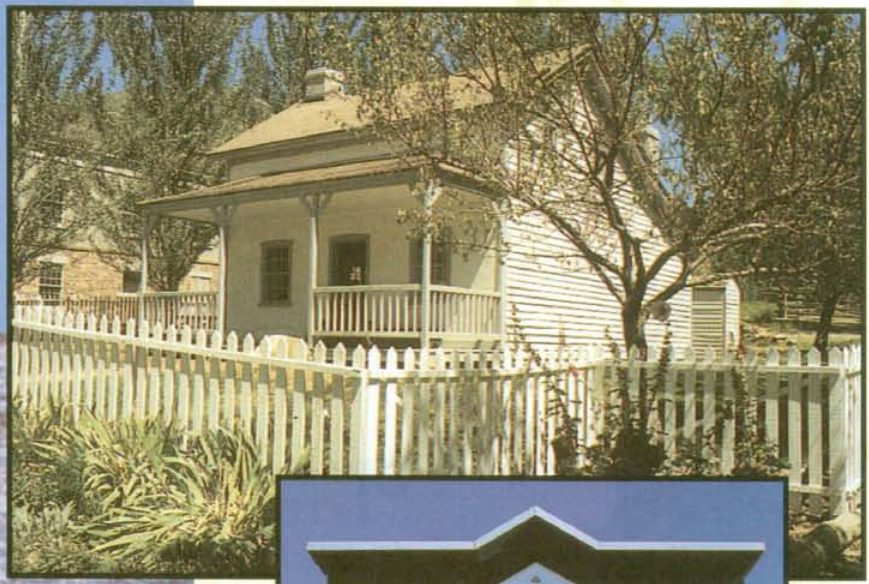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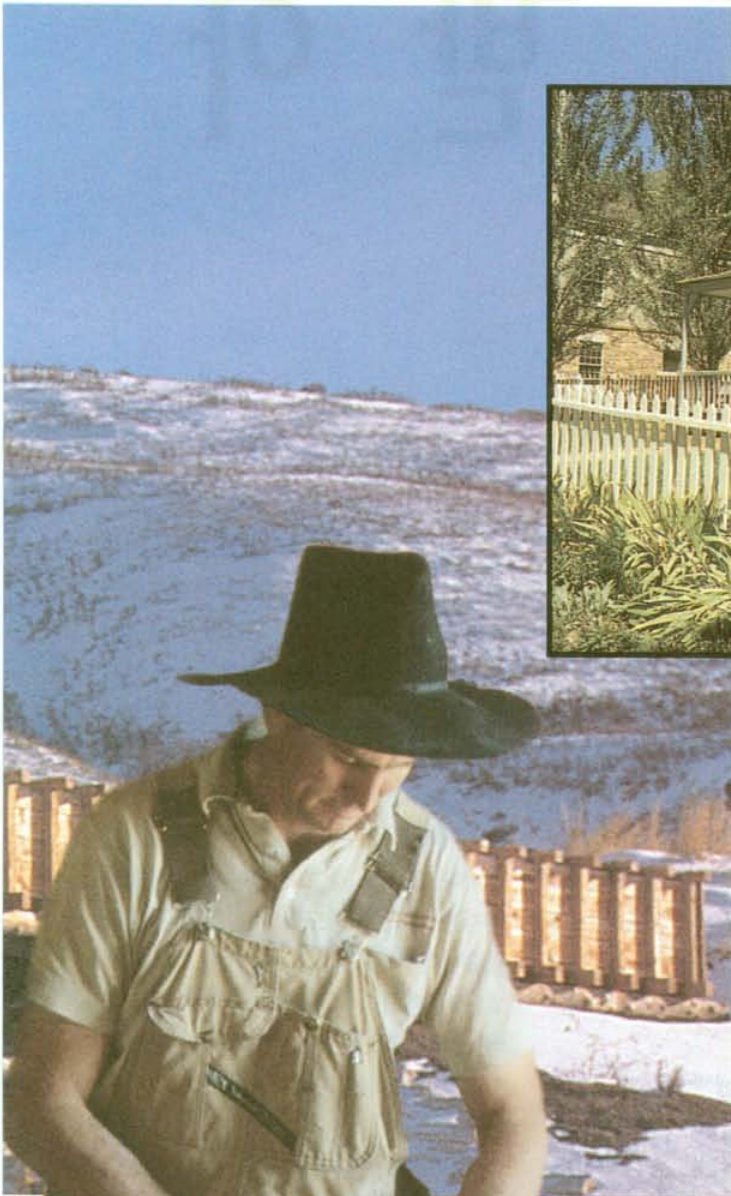


사진 촬영: 탐라 촬영관

사진 촬영: 데이비드 코트

왼쪽 위: 1854년 크릭 캐년 맨타이 시 입구에 세워진 방앗간을 복원한 것.
 1857년에 맨타이 시내로 옮겨졌다.
 왼쪽: 한 자원 봉사자가 가구점에서 선반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위: 1850년경 루터 티 터틀이 맨타이에 세운 일반 상점을 복원한 것.
 맨 위: 영국에서 이민 온 사무엘 쥬크스가 육중한 소나무와 나무못을 이용해서 이 집을 지었다.

도 전 을 받 아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을 돕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은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셉 스미스는 각각 새로운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시작했고, 이 각각의 기간 동안 주님은 지구상에 성신권의 열쇠를 소유할 권능을 부여받은 종을 적어도 한 사람은 두셨습니다. 주님은 한 경륜의 시대를 조직하실 때, 복음을 새롭게 드러내셔서 사람들이 구원의 계획의 지식을 얻기 위해 과거 경륜의 시대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에 의해 시작된 경륜의 시대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 (교리와 성약 112:30)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권능의 열쇠를 회복해 줌으로써 시작된 이 경륜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비록 선조 아담이 모든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을 지라도 요셉 스미스가 이전의 모든 경륜의 시대의 열쇠, 권능, 영광을 함께 통합하는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교리들을 통해서 배운 바와 같이, 우리들은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것이 성취되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일원이 되는 특권에 대해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 신성한 계획에서 어느 곳에 적합한지 생각해 보는 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또 한 시대의 시작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다가오는 운명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 계신 예언자의 지시를 따른다면,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도 갖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퍼지는 강력한 지도력의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1995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접어든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소리로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사업의 장래에 관하여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거나, 편협되게 말하거나, 두려움을 표하거나, 실제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만 그들이 약점이라고 여기는 것을 찾아서 기록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관해 의심을 갖는 사람은 미래에 관한 비전도 없습니다.

“... 이 사업에는 절망적으로 복음만을 믿는 사람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업입니다.

“주님은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업



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종류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슬픔 중에도 행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꾸준히 진보해 왔으며 한 번 시작한 뒤에는 결코 퇴보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대업의 과거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과거는 영웅담과 용기와 대담함과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



이 경륜의 시대는 요셉 스미스에게 권능의 열쇠를 회복해 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의 그 어느 세대보다도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리가 주님의 종들의 메시지를 듣게 될 백성들의 생활을 축복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는 현재는 얼마나 기이합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의 구속주에 대한 신앙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의 사심 없는 봉사를 통해 온 세대의 그분의 자녀들까지도 축복하시는 영광스러운 사업을 전진시켜 나아갈 때 미래는 얼마나 장엄합니까?

“이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시든지, 굳건히 서서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며 전진하고, 복음대로 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왕국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머무르십시오 - 신앙을 수호하십시오”,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71. 72쪽)

여러분은 이 특별한 세대의 일원입니다. 주님의 사업이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 더 큰 힘과 영향력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 구세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시대를 인류 역사상 가장 약동하는 시대로 만들기 위해 이 위대한 군대의 일원이 되도록 지금까지 보존되고 준비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여러분은

이 땅을 상속받은 다른 어느 세대의 사람들 보다 훌륭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 힘과 효력을 갖게 하려면 여러분의 말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표준과 가치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데에서 오는 유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가야 할 진로에 관해서 모든 것을 배운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많은 중요한 결과를 가

져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큰 빛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구세주의 필요성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이사야와 베드로의 말씀처럼 “그 분이 채찍에 맞음으로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사야 53:5; 베드로 전서 2:24 참조)

사도 바울은 이 빛을 지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로마서 12:1)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힘과 열의와 온 영혼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책임을 수행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우리 귀에 울리는 듯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들읍시다. “형제들아,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려느냐? 전진하여 물러서지 말며, 용기를 내라. 형제들아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자. 기뻐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세상 사람들아, 노래 불러 울려 퍼지게 하라. 죽은 자여, 임마누엘 임금께 영원한 찬양의 찬송가를 부를지어다. 저는 창세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그 옥에서 속량해 줄 수 있게 정하셨느니라. 이는 갇힌 자가 석방될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128:22).

우리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들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허락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 세대 동안 닫혀 있던 문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열리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기쁨과 구원의 메시지이며, 그것은 이 지상의 모든 주민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요셉 스미스가 뉴욕 주의 그의 이웃에게 전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복음이 다시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온 인류에게 회복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간증이 여러 언어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날의 사업을 위해 부름 받았습시다. 이 임무를 받아들이시기를 기원합니다. □

1996년 5월 5일에 열린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에서 하신 연설에서 발췌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이 세상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큰 빛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힘과 열의와 온 영혼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책임을 수행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영으로 교화됨

에바니르 카르도소

신학원 대학부 교사로서 나의 첫 수업은 큰 실패였다. 나는 1주일 내내 공과를 준비했다. 그러나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말하려고 준비

했던 것들이 거의 생각나지 않아서 한 시간짜리 수업은 고작 30분 만에 끝나고 말았다.

지부장님께서 브라질 조인빌 스테이크 파티 마지막의 신학원 대학부 교사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내 능력에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봉사 하라는 부름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새로운 부름을 잘할 수 있도록 경전 공부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나 자신을 준비시켰다. 그러나 첫 번째 수업이 끝난 후 과연

내가 대학부 교사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내가 느낀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한 음성이 포기하지 말

라고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 번 경전 공부에 몰두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극복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다.

두 번째 수업 시간이 되었을 때 가르치는 것에 대한 내 걱정은 사라졌다. 나는 내가 왜 성신의 영향력을 느끼지 못했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나는 모두를 환영했고 반원들은 개회 찬송을 불렀다. 찬송을 하는 동안 내 안에서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교사로서의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내 능력을 확장시켜 주실까? 학생들은 영에 의해 교화될까? 불안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반원이 개회 기도를 한 다음 나는 일어서서 수업을 시작했다. 나는 말할 때 영을 느꼈고 즉시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아 내 목소리는 차분했으며, 입에서 말이 술술 흘러 나왔다. 그리고 준비했던 모든 것을 기억해 낼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났을 때 나는 만족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다. 나는 오랫동안 그분께 감사드렸다.

나는 영에 의해서 모든 반원들이 교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우리가 부름을 받아들이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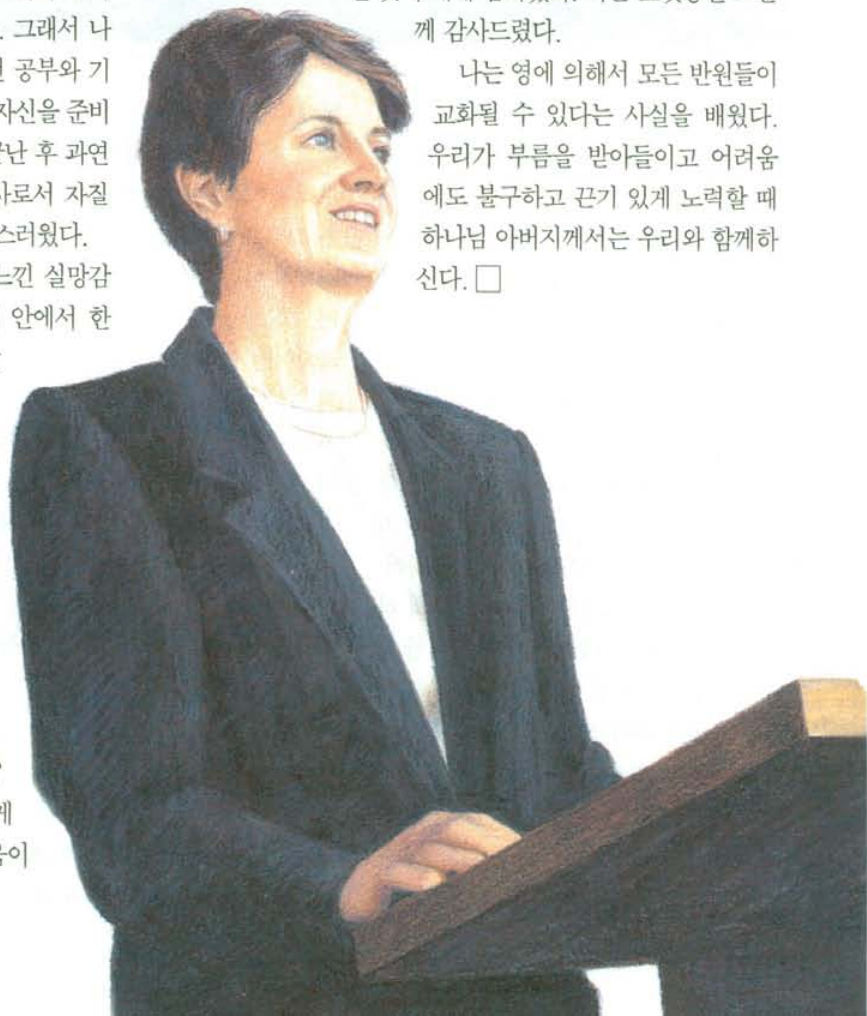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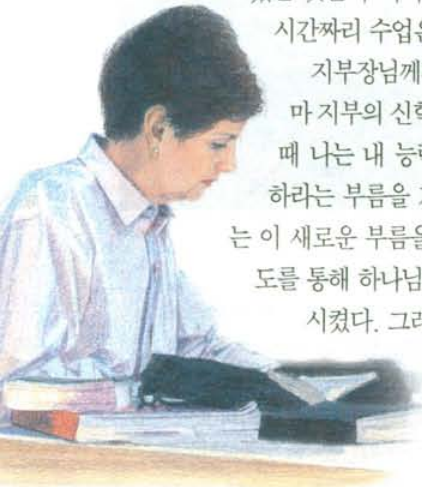




그림: 제임스 자크스 조셉 티샷 성전에서 짐름발이를 고치심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대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시며 또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마태복음 21:12, 14】



“크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 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마가복음 4:37~40)